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考察

濟州大學校 大學院



李 完 鐘

1995년 12월 일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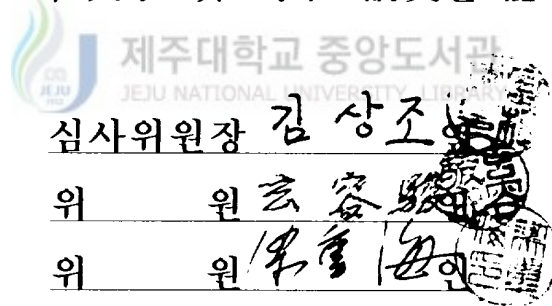
指導教授 玄 容 駿

李 完 鐘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년 12월

李完鐘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5년 12월

A study of Village sacrifices in Chejudo

Lee Wan-Jong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Y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F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5

目 次

I. 序 論	1
II. 儒式마을제	5
1. 醮祭	5
1) 醮祭의 節次	5
2) 祭의 名稱	14
3) 祭神	16
4) 祭日	18
5) 祭의 場所(祭壇)	18
6) 祭物	19
2. 別祭	20
3. 海神祭	21
4. 帝釋祭	23
5. 기타 마을제	24
6. 祝文	25
III. 巫式마을제	31
1. 堂굿의 種類	31
2. 堂神의 類型	33
3. 巫儀의 祭次	38
4. 祈願의 內容	41
IV. 儒式 마을제와 巫式 마을제의 相關性	47
V. 마을제의 機能	53
VI. 結 論	56
참고문헌	58

I. 序 論

어떤 종교이건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기원하는 행위가 있다¹⁾. 濟州島 각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신에게 기원하는 의례로 마을제가 행해지고 있다. 마을제는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공동적 제의로서 古代 씨족사회 이래로 지역사회의 단결과 협동, 나아가서 민족문화의 전승, 민족국가 형성에 크나큰 역할을 해온 民間 信仰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 마을제는 巫式 마을제와 儒式 마을제로 나눌 수 있는데, 巫式 마을제란 각 마을에 분포 되어 있는 堂에서 주로 女性들의 主管下에 심방에 의해서 치러지는 제의이며, 儒式 마을제란 儒敎式 제의 절차에 따라 남성들의 主管下에 치러지는 제의이다.

濟州島民들은 척박한 땅과 바다를 밀친 삼아 농사와 어로에 종사하면서 살아 왔고, 絶海孤島의 流配地인 이 곳에 民弊의 主犯이었던 貪官汚吏들의 收奪³⁾에 희생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超自然的인 대상에 기대어 자신들의 삶을 기원하는 제의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의가 儒敎式 祭儀로서 행해지는 儒式 마을제이고, 巫俗的 祭儀로서 이루어지는 당굿이다. 이 의례에서는 濟州島民의 삶의 기원이 眞率하게 나타난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所望과 마을사람들의 바라는 共同體의 所望, 이 모든 것이 儒式 마을제인 경우는 祝文의 내용에서, 당굿의 경우에는 堂본풀이 속에서 나타난다.

마을제는 예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李衡祥 牧使의 신당 撤廢에서부터 일제시대의 民族精氣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던 彈壓, 가까이로는 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당굿을 迷信打破의 대상으로 彈壓했던 것과 더불어 마을 村老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儒敎式 祭儀가 自意半 他意半으로 중단이 됐다. 그

- 1) 표인주, “全南村祭의 祝文 研究”,(전남대 석사학위논문,1989), p. 5.
- 2) 李杜鉉 외, 「部落祭堂」,民俗資料調查報告書 第39號, 1969, p. 7.
- 3) 김동섭,“兎山堂 본풀이 研究”,(제주대 석사학위논문,1989), p. 2.

러나 외형적으로는 根絶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당국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동네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몰래 행해지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고, 儒敎式 마을제는 최근에 이르러 각 마을에서 다시 復活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제가 濟州島民의 求心點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마을제에 대한 考察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온 濟州島民의 삶의 모습을 알게 해줌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指標를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지금까지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調査 研究는 여러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거의 堂信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儒敎式 마을제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堂信仰에 대한 연구는 日人學者 秋葉 隆, 赤松智城, 國內學者로는 張籌根, 玄容駿, 秦聖麒님 등 여러분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秋葉 隆은 『朝鮮 巫俗의 研究』 上卷에 西歸浦 男巫 朴奉春 翁의 구송본으로 16편의 본풀이를 채록하고 있고, 『朝鮮民俗誌』에서 濟州島 <토산당본풀이>를 분석하고, 濟州島 蛇鬼信仰을 論하였다⁴⁾. 이 秋葉 隆의 研究 論議는 日本의 朝鮮을 植民地化하고 植民地 政策을 위한 하나의 資料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濟州島 巫俗研究에 대하여 시작이라는 意味밖에 없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歪曲시킨 흔적이 많아 보인다.

張籌根님은 「濟州島의 巫歌」(1)⁵⁾ (2)⁶⁾에서 濟州島 松堂里, 上倉里 등의 <당본풀이>를 調査하였고, “濟州島 巫俗의 도깨비 信仰(1986)”이라는 論文에서 高山里 <당본풀이>를 분석하고 도깨비신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秦聖麒님은 <당본풀이>를 채록한 『南國의 巫歌(1968)』, 『무가본풀이사전(1992)』 등을 採錄 整理 出刊하였다. 그리고 論文으로는 10여편이 있다.

4) 문무병,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p. 3.

5) 장주근, <濟州島 巫歌>(1), 『國語國文學 19』, 1958.

6) 장주근, <濟州島 巫歌>(2), 『國語國文學 22』, 1960.

이 研究 論文들은 『南國의 巫俗』에서 요약되고 있다.

玄容駿님의 堂神話에 대한 研究 論文은 20여편이 되는데, 이 論文들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⁷⁾에 整理 收錄되고 있다.

그 밖에도 文武秉님을 비롯한 몇몇 研究者들의 論文이 있다⁸⁾. 이와 같이 濟州島 巫俗에 대한 研究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研究 대부분 당본풀이를 통한 民間信仰 또는 巫俗信仰을 이해하고자 하는 研究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儒式 마을제에 대한 研究는 玄容駿님 이외에 몇 사람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玄容駿님은 “濟州島의 儒式部落祭”⁹⁾란 論文에서 濟州島에서 치러지고 있는 儒式 마을제를 形成과 種類, 實態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秦聖麒님은 『濟州島巫俗論考』¹⁰⁾에서 <醮祭堂과 部落祭>란 항목으로 간략히 記述하고 있다. 文武秉님은 “濟州島 堂信仰 研究”¹¹⁾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調査資料로서 1969년에 행해졌던 民俗資料調査報告書¹²⁾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儒式 마을제에 대한 본격적인 論文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이고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本 研究는 앞서 선학들이 쌓아 놓은 研究 業績들을 토대로 儒式·巫式 마을제의 형성과 상관성, 그리고 마을제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7)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8) 문부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1990.
-----, <제주도 사신신앙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제주도의 생수설화와 물법신앙>, 『탐라문화』 12, 1992.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허남춘, <삼성신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9) 현용준,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 10) 秦聖麒, 『濟州島巫俗論考』, 제주민속연구소, 1993.
- 11) 문부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 12) 이두현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 『제주도부락지』(1 - 4),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시, 경신인쇄사, 1992.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II. 儒式마을제

儒教式 마을제는 釋奠祭를 기본틀로 하여 남성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마을 有志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형식의례이다. 이런 儒教式 제법에 의하여 거행되는 도내의 마을제는 전체 마을사람들의 안녕과 생업에 대한 기원으로 올려지게 되는데 부락에서 행해지는 마을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醮祭 - 마을 수호신을 위한 의례
- 2) 別祭 - 포제와 별도로 지내는 병이나 재난을 방지하는 의례
- 3) 海神祭 - 어업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의례
- 4) 帝釋祭 - 농업을 관장하는 제석신을 위한 의례
- 5) 기타마을제 - 가뭄이 들 때 행하는 祈雨祭와 산신에 대한 山神祭 등

1. 醮祭

1) 醮祭의 節次



儒式마을제 祭儀 節次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會召集

마을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지만 上丁日이 가까와 오면 鄉長이나 里長이 祭儀를 치르기 위한 會議를 召集한다. 이 會議에서는 經費募金 및 祭官 選出이 이루어지고 祭儀를 치르기 위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 회의를 포젯상회라 한다. 포젯상회는 마을의 지연·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자치성이 강하다. 포제를 관리하는 회회의 조직체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구공동체조직으로 鄉長(마을의 장), 公員(향장의 보좌역), 總務(경리·서무역), 次知(연락 및 사무 보좌), 助事(연락 및 잡역)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둘째는 과도적인 조직으로 향장·이장·반장의 조직체제로 구공동체조직과 신행정조직의 중간 형태다. 향장은 年老者로 마을의 권위적 존재로 앉히고 실질적 집행은 이장이 알아서 하는 경우다.

셋째는 행정조직으로 향장제가 없어지면서 이장-반장의 조직에서 제의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① 經費募金 : 예전에는 家戶마다 얼마씩 정하고 걷었는데, 요새는 마을 共同資金으로 充當하는 경우가 많다.

② 祭官選出 : 獻官은 마을에서 學識과 德望이 있는 마을 有志로 選出한다. 그외의 祭官은 마을에 따라 姓氏別로 뽑는다든지 各洞에서 고루 뽑는다. 그리고 祭官은 12祭官(典祀官까지 포함하면 13祭官)이 原則이나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祭官의 種類와 任務는 다음과 같다.

初獻官 : 첫째 獻官으로서 제를 치르는데 中心되는 祭官이다.

亞獻官 : 둘째 獻官이다.

終獻官 : 막내 獻官이다.

執禮 : 제를 집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자와 같으며 祭儀를 처음부터 끝까지 擔當하는데 笏記로써 祭儀를 進行시킨다.

大祝 : 祝文을 고하는 사람으로서 祝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選出한다.

謁者 : 執禮가 부르는 笏記 순서에 따라 獻官을 案内하는 者이다.

贊者 : 執禮가 '鞠躬拜' 하면 보조역할로 '興'을 부르는 사람이다.

奉香 : 執禮가 '三上香'이라고 笏記를 부르면 奉香은 香木 가지를 獻官에게 드리는 役割을 한다.

奉爐 : 奉香이 향목 가지를 獻官에게 드릴 때 香爐를 준비했다가 드리

는 사람이다.

奉爵 : 獻官에게 술잔을 드리는 役割을 한다.

奠爵 : 獻官이 奉爵에게서 받은 술잔을 받아 神位에게 올리는 役割을 한다.

司樽 : 술을 管理하고 잔에 술을 부어 주는 役割을 한다.

典祀官 : 祭物이 準備, 陳設, 徹床 등 祭物을 管理하는 사람이다.

이 이외에 豫備祭官으로 豫差(豫備獻官), 都豫差(執禮 以下の 境遇)를 정하고, 또한 처음으로 祭官이 된 사람은 祭官이 된 榮光으로 先輩祭官들을 待接하는 禮를 베푸는데, 이를 初行禮라 한다. 술, 담배, 약간의 음식을 차려와 대접한다.

(2) 入祭

祭官이 決定되고 酬祭廳이 決定되면 祭日 3-5일전(예전에는 7일전)부터 祭官들만 합숙을 하게 된다. 포제청은 祭壇에서 가깝고 깨끗한 집(보통은 전사관집)을 고르고 여자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음식에 있어서도 不淨한 음식을 먹지 않고 비린 것을 보지 않으며 깨끗한 물에 몸을 씻으며 精誠을 하고 祭官이 不淨하거나 마을에서 누가 解産하거나 初喪이 나면 제는 연기된다. 정성 기간 동안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3일 정성의 경우¹³⁾).

첫째날 : 준비 및 예행연습

둘째날 : 제물 및 축문·홀기 등 제문준비

셋째날 : 제물봉헌 행제

첫째날

祭廳에 들어가면 집사방을 잡는다. 이것은 祭官들 名單을 쓴다는 意味이다. 執禮가 大祝에게 집사방을 잡으라고 지시하면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으

13)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시, 경신인쇄사, 1992. pp. 68-69.

로부터 시작하여 12祭官의 名單을 쓴다. 그리고 이날 마을 입구의 모든 길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禁하고, 祭場을 청소하는데 제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해마다 方位를 보아 깨끗한 밭으로 정한다.

둘째날

犧牲을 준비한다. 이것은 돼지를 잡아 물을 끓여 칼로 털을 하얗게 곱게 깎아내고, 내복만 곱게 빼어내어 보관하는 것이다. 이 내복도 제를 넘기기 전에는 누구라도 손을 대지 못한다. 祭壇에 모실 때는 내장만 곱게 빼어낸 채, 큰 대그릇에 넣어 方向을 보아 머리를 동쪽으로 해서 놓는다. 이렇게犧牲을 봉할 때는 祭官들이 모두 유건을 쓰고 官服을 입어 가지고 방에 쭉 둘러 앉아 있고, 執禮가 大祝에게 축을 쓰라 하고 執禮는 笏記를 부르니까 笏記를 쓴다. 특별한 豫行演習은 祭官들이 소집사부터 올라간 사람들이라 없다.

셋째날

곧 祭日인 上丁日이다. 子時 前에 祭物을 제단에 운반해 가서 陳設하고 子時가 되면 제를 지낸다. 그 순서는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奠幣禮(神位에게 幣帛을 드리는 것), 初獻禮(초헌관이 奉爵에게서 술잔을 받아 경건하게 奠爵을 통해 신위에게 드리는 것), 讀祝(大祝이 初獻官을 대신하여 祝을 읽는다), 亞獻禮(初獻官과 같은 方式으로 하는데 讀祝이 없다), 終獻禮(亞獻官의 하는 方式과 같다), 飲福(初獻官이 술과 음식을 먹는 것), 撤籩豆(祭가 끝나는 過程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饗상에 차려놓은 매, 과일, 포, 육 등 모두를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돌려 놓는 일이다), 望燎(祝文과 幣帛을 불사르는 제차로 初獻官이 謁者의 도움을 받아 望燎位로 나아가 祝文과 幣帛을 불사르고 돌아옴으로써 祭가 끝난다)의 순으로 純粹 儒敎式으로 치르는데 笏記는 다음과 같다.

笏記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拜位 謁者引初獻官之左 白 有司謹具 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引詣醕神之位前 西向立 跪 三上香 獻幣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南向立 執樽者 舉罍酌酒 引詣醕神之位前 跪 獻酌 早伏 興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引詣樽所 南向立 執樽者 舉罍酌酒 引詣醕神之位前 西向立 跪 獻爵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盥手 引詣樽所 南向立 執樽者 舉罍酌酒 引詣醕神之位前 西向立 跪 獻爵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飲福受胙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南向立 跪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俎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撤籩豆 祝進撤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西向立 焚幣 蓋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 禮畢出初獻官以下次出 執事者俱復拜位 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祝以下次出



(3) 飲福

祭가 끝나면 祭官을 비롯한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먹고 鄉長, 老齡者, 有功者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4) 豫兆

行祭中이나 후에 썩소리, 말의 소리가 들리면 吉하다고 하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凶하다고 한다. 또 入祭日에 날씨가 좋으면 吉하다고 한다.

각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1>

마을	내용	제명	제신	제일(음력)	표제단제정성 유무	관기간	세 물	기 원	내 용
제주시 연동	연동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15 3	월매2,조매2,희생,매떡,5과,생선,명태,소고기,형영,미나리,무우채,죽순채,생강주,7과,포옥,생선,명태,미나리채	惡我比城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2 3~4	도랑사직매4,소고기,미나리,무우채,형영,매떡,백지,생선,명태,5과,생강주	四我龍編,雨龍風調,並無疾疫,傳登五穀,出我八畜,彌及致祥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3 3	월매2,조매2,희생,매떡,5과,생선,명태,소고기,미나리채,무우채	雨龍風調,人業蕃盛,消禍致祥,彌以降福,佑我八畜,人人敬懼,殷之成熟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7月 上丁日	0	13 3	미나리채,무우채	雨龍風調,除災致祥,有以消滅,穀物豐登,有以新穀,六畜無虞,人生安樂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14日	0	5 1	포채와 같이 희생대신 닭	吉祥必致,消災降福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2 3	월매2,조매2,희생,매떡,소고기,희생,도랑사직매4,희생,유자1,소고기,미나리,무우채,명태,생강주	彌及致祥,業豐財茂,小人得免,有嘉新穀,五穀豐備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2 3	도랑사직매2,희생,명태,소고기,희생,무우채,생선,명영모듬	雨龍風調,消禍致祥,彌以降福,殷之成熟,佑我八畜,人人敬懼,鄉土所望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2 3	무우채,생선,명영모듬	彌及致祥,業豐財茂,如此致熟,五穀蕃熟,一面豐備,屬社牛疫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6 3	도랑사직매4,보시시루의 쌀을대며,구운 생선,과일,강장류	人人避業,家家安樂,五穀豐登,六畜蕃備,消災降福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2 3	일반적인 제물	彌及致祥,彌以降福,人人敬懼,家家安樂,豐版五穀,善其六畜,是社龍祭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7 3	과,매떡,명태,생선,말린것	彌及致祥,彌以降福,屏致饑饉,人人敬懼,家家安樂,豐版五穀,出納成民,善其六畜,是社龍祭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도랑사직매4,생선,미나리,무우채,생강주,5과	興我稼穡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도랑사직매4,희생,그의일반적인제물	彌及致祥,彌以降福,人人敬懼,家家安樂,豐版五穀,善其六畜,是社龍祭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5 3	차츰할매2,찰할매1,말할매1,5과,희생,미나리,무우채,명태,매떡,생강주,백지	惡我城民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7 3	도랑사직매4,7과,죽음과조기,명태,고사리,생강주	輪轉宇編,除災降福,三畏人農,有以口舌,祈禱靈誠,永為消滅,國泰民安,惠傳成功,歸邦建慶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3 3	월매2,조매2,희생,생선,소고기,무우채,미나리,5과,매떡,생강주	惡我比城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16 3	월매1,찰할매1,말할매1,차츰할매1,7과,매떡,생선,명태,소고기,미나리,무우채	惡我比城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	8 3	월매2,차츰할매1,말할매1,희생,매떡,5과	善祭自我新德	
제주시 노형동 부락	노형동	龍祭	龍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도랑사직매4, 4매떡,희생,5과,미나리,무우채,생선	惡我比城	

비율	제명	제신	제일(음력)	표제년	제정장	제물	기원	내용
제주시 오라이동 사평부락	무社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 15 3	도당서적제4,외생,패백,소고기,옥돔,3과,미나리,무우채,청주	無社民城		
제주시 오라산동	무社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 14 4	외생,명태,생선,소고기,미나리,무우채,형염생강주	無社民城		
제주시 이호동 현사부락	무社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3과4,참살메1,차츰살메1,매콤살메1.5과,외생,소고기,미나리,무우채	勿我講編,致群除載,日用飲食,賜福無量,掃清承靈,豐年穰穰		
제주시 이호동 오도부락	洞社祭	土地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외생,패백,소고기,생선,5과,미나리,무우채	社災致群,民無疾苦,歲比豐穰		
제주시 이호동 동서부락	무社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도당서적제4,생선,건어,5과,미나리,무우채,외생	社災致群,民無疾苦,歲比豐穰		
제주시 이호동 중앙부락	무社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 12 3	도당서적제4,외생,생선,무우채,생강주	民無疾苦,歲比豐穰		
제주시 내도동	洞祭	무社之神	7月 丁亥日	0 8 3	참살메2,외생,패백,5과,미나리,고사리,무우채,명태,생강주,외생,소고기	제난보호,오고풍성,소원성취,질병보호,교통사고방지		
제주시 연대	洞祭	木都之神	正月	0 4 3	참살메2,참살메2.5과,명태,붉은우럭,미나리,고사리,담	六畜蕃盛,五穀豐登,祈而祝嘏,賜以景福		
제주시 도평동	洞祭	무社之神	正月 上丁日	× 4 3	도당서적제4,외생,5과,생선,명태,소고기,생강주	오곡백과풍성,가축번성,수산풍요,소득증대,질병제난보호,리세화장,임신안명		
제주시 도두일동	洞祭	隨神之靈	7月 上丁日	0 12 3	도당서적제4,외생,소고기,복어,명태,과	南風風調,時和可喜,五穀豐登,果實豐作,六畜蕃盛,內除諸厄		
제주시 도두이동	洞祭	隨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참살메1,참살메1,매콤살메1,외생,돼지머통,미나리,담란,무우채,조기,5과,소고기,명태,생강주	社災致群,歲比豐穰,民生無疾,南風風調,車輪往來無事故,道浦釣魚出入無苦		
제주시 외도일동	洞祭	本都之神	正月 上丁日	0 13 3	포제와 거의 같으나 제물은 이인,옥시	障之百祥,真神災厄,傳民壽康,無災禍		
제주시 외도이동 율대부락	洞祭	隨神之靈	7月 上丁日	0 7 3	도당서적제4,외생,5과,생선,고사리,미나리,무우채,명태,윤로수	人事無一產,業得安,海路利溥,講災獲免,南風風調,五穀豐登,病蟲災荒,六畜蕃盛,相構果熟,進學成就,犯罪盡防,諸事順興,機旋,企業繁榮,慶福爲昭		
제주시 용담일동	洞祭	里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2 1	참살메1,매콤살메1,참살메1,외생,7과,소고기,옥돔,명태,미나리	오곡백과풍성,가축번성,수산풍요,친제지연의 제과,질병 도면,리세화장,이웃간화목,임신안명		
제주시 용담일동 동한두기	洞祭	土地之神	正月 上丁日	× 12 2	도당서적제4,외생,생선,소고기,7과,미나리,무우채	彌災致群,轉禍爲福,豐穰五穀,產業隆盛,商丁進步,農防疾疫,遠消禍厄		
	洞祭	彌勒尊佛	正月 上丁日	0 12 2	도당서적제4,외생,소고기,생선,5과,미나리,무우채	安其終業,壽比龜年,靈顯百福,駕雨于災,戰栗成機,家富繁福,同我人平,靈海風息		
			正月 上丁日	0 12 2	포제와 같이 돼지머리를 올림	三災八難,一切病苦,厄難大爲消滅,萬事吉福,家七永安,土地豐饒,女慈子孝,男忠女貞,友弟		
						彌人妻和睦		

마을	제명	제신	제일(음력)	표제단계 유무	계정 기간	제	물	기	원	내	용
제주시 용담이동 문부락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15	3	삼메2,중삼메2,과,희생,미나리,무우채,배,백지	應我民賊			
제주시 용담이동 운부락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3	3	도양서지메4,희생,소고기,명태,생선,과일	主張風雨,司我農政,盜難防厄,榮農請事,無故通行,無患歸來			
제주시 삼양일동	里社祭	里社之神	正月 上丁日	×	11	3	도양서지메4,희생,소고기,명태,5과,계소,3생강주,소주,막주	預災招祥,轉禍爲吉,人人壽福,家家安樂,豐厥五穀,嘉其六畜,遠獲續疫			
북제주군 애월읍 양머리	거리제	巷神之位	正月 上丁日	×	3	3	제물은 리사제와 동일하나 익힌 음식 고의생선,수합	물,불,나무,돌에 의한 피해방지,인동기류 및 거마에 무사고,예운에 당한 미명 잡귀에 의한 피해방지,가정의 안녕과 행복 기원			
북제주군 애월읍 양머리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4	3	제물은 리사제와 동일하고 돼지머리,물,된다	순풍기원,신박보호,흥어,해상자원공성,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洞社祭	洞社之神	7月 14日	0	5	3	삼메2,조메2,배,포,절인고기,5과,무우채,장갑주,닭	친제지변과 질병방지,농업 출산 제반사업 풍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삼메2,조메2,희생,배,포,5과,생선,미나리,무우채,향염,모밀	壽福謀寧,家人和睦,雜疫備厄,播種五穀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거리제	洞祀之神	正月 上丁日	×	12	3	삼메2,조메2,배,희생,포,5과,미나리,무우채,생선,향염,모밀	有去千夜,降米萬福,驅除時疫,蕃育牧豕,嘉我農事,永歲謀寧			
제주시 삼양일동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7	3	일반적인 제물	미제치상,서강다복,진구중앙기축민시,소재지역,방송질역			
제주시 도림일동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0	3	일반적인 제물	預災招祥,轉禍爲吉,人人壽福,家家安樂,豐厥五穀,嘉其六畜,行船無敗,出人無故,遠獲續疫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0	5	3	삼메(근양준기),희생,소고기,명태,7과,미나리	監我賜福,學約多得,燭照無故,行船如火,潛女無辜,池物豐厥,家家富足,永歲安樂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거리제	洞內無祀之神	正月 上丁日	×	2	3	일반제사제물에,생선,과일,계소	預災招祥,轉禍爲吉,人人壽福,家家安樂,豐厥五穀,嘉其六畜,遠獲續疫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	14	4	삼메2,중삼메2,희생,7과,소고기,미나리,바다고기,×	傷水或依木,石爲福,口禱口疫,拚命機厄,驅我康樂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洞社祭	洞社之神	7月 上丁日	0	12	3	삼메2,조메2,희생,배,포,5과,소고기,생선,미나리,무우채,감주	社絕運,續福續疫,老幼康強,幼無夭折,人力豐出,耕事無辜,有豐百穀,無損六畜,以次以饋,百穀人豐,善良六畜,人無疾厄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마유제	土地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삼메2,조메2,희생,배,포,5과,미나리,무우채,생선,향염,모밀	民樂太平,百穀豐登,民無疾疫,豐播疫災,作馬蕃盛,雨澤風調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洞社祭	洞社之神	正月 上丁日	0	12	3	도양서지메4,희생,배,포,과일,조기,미나리,감주	主張風雨,年登民樂,壽我福我,反災並祥			
북제주군 애월읍 영일리	洞社祭	洞社之神	6月 上丁日	×	12	3	삼메2,중삼메1,시루떡,돼지머리,생선,배,미나리,무우채,과일,생강자	驅驅物豐,除災降福,以驅紅疫,全然無損			

마을	제명	제신	제일(음력)	표제단제정성유우	관기간	세불	기원내용
북계주군 조친음 손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매3.희생시우역,매백,경목,미역새,미나리,권어,과일,소고기,감주	彌災招祥,酬神,人人壽福,家家安樂,豐熟百穀,嘉人六畜,而瓜瓞盛,船舶利涉,風暉霽,或節水火,或依木石,爲靈爲理,爲禮爲食,匪命權也,勿侵人民,電風電晦,勿背躬禮,均蒙惠澤	
북계주군 구좌음 남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9 5	쌀메2,조메2,희생모형,매백,5과,미나리,고사리,생선,명태,소고기,감주	彌災疾厄,五穀豐登,六畜蕃殖	
북계주군 구좌음 정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고사리,생선,명태,소고기,감주	彌災疾厄,百穀豐登,六畜蕃殖,行船舶利涉,豐納必得	
북계주군 구좌음 원리	酬祭	境內無祀之神	正月 上丁日	0 3 3	위와 같음	庶難而又絕,強奪差妄,掠取財物,行船舶利涉,牛馬群牧,急急自勿	
북계주군 구좌음 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8 5	쌀메2,조메2,희생,매백,5과,포,미나리,우유채,5과,매	彌災疾厄,而船舶風調,豐登五穀,嘉息六畜,而女採桑,商財利益,大災永釋,百福雲作,順風無咎,三農治足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3 3	쌀메1,희생,매,포,미나리,우유채,5과,매백,삼갈주	女而壽,而順風調,人登百穀,吾不阿味,人不承稅,兒無夭折,井無漏卮,池必多得,家家康樂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 3	쌀메3,감꼭메3,각5과,포,생선,감주	民得莊耕,穀豐嘉,豐登疾疢,吾不阿味,亦無落,家家康樂,戶戶太平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6 3	도량서치메4,희생(소),매백,7과,미나리,채,우유채,우유,생선	都防諸厄,物免災賊,永福無殃,人人壽福,家家太平,五穀豐登,六畜嘉,轉轉爲福,轉及致祥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갈음	0 2 3	갈음	申願風調,而不擲波,危中得安,百事解憂,工罪消滅,永福無殃,人人壽福,家家太平,百穀無災,六畜有全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8 3	도량서치메4,희생,노루고기,형염,미나리,우유채,매백,소고기,생선,감주	彌災招祥,在日備,體力降,所願成,災除,豐登,豐登,百高,積積百穀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 3	위와 같음	災疾各神,邪神,牛馬群,鬼,孤魂無託,非命權,死生災,禍災,永世太平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8 3	도량서치메4,희생,매백,과일,미나리,우유채,노루고기,생선,형염,현주	邪神,邪鬼,無我百穀,家家太平,人人安樂,轉災爲祥,人人壽福	
남계주군 정신음 손평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1 3	하례1리와 동일	彌災招祥,屏却災殃,五穀豐登,六畜蕃息,世世百兒,佑我恩惠	
남계주군 대정음 가파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12 3	쌀메2,조메2,희생,형염,소나,닭,매백,생선,노루고기,형염,미나리,우유채,5과,감주,모형	除災,彌祥,海不揚波,禍休充實,大無烈風,而產嘉,豐,群由驅除,福之表	
남계주군 안덕음 손리	酬祭	酬神之靈	正月 上丁日	0 26 4	쌀메2,조메2,희생,모형,과일,미나리,형염,생선	逐離千祥,掃滅災孽,轉禍爲福,潤雨順風,農從百穀,嘉嘉八畜	

2) 祭의 名稱

醮祭의 名稱은 일반적으로 ‘醮祭’라고 불려지지만 각 마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1) 醮祭, 農醮祭, 里醮祭, 春醮祭

醮祭는 대상신이 ‘醮神之靈’, ‘醮神之位’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대표적이며 마을제의 총칭으로 쓰이는 명칭이다. 農醮祭는 마라도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원래 포제의 성격이 농경사회에서 행해지던 풍농기원이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가파리인 경우는 春醮祭란 명칭이 쓰이기도 한다.

(2) 里社祭 또는 洞社祭

마을을 관장하는 신에게 올리는 마을제의 名稱으로 각 마을의 行政單位가 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里社祭란 名稱이 一般的이며 行政單位가 市로 되어 있거나 마을이 커서 洞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洞社祭란 名稱을 쓴다. 祭神은 ‘里社之神’ 혹은 ‘洞社之神’이다. 대상신인 ‘里社之神’은 社稷祭的인 데서 명명된 것으로, ‘마을의 社稷을 담당한 神’을 위한 의례이다. ‘社’는 土神, ‘稷’은 穀神을 뜻한다.

(3) 鄉祭, 마을제, 동넛제

鄉祭, 마을제, 동넛제 등은 마을 공동의 의례에서 나온 명칭으로 醮祭, 里

社祭 등 명칭과 복합으로 쓰이며, 주로 부녀층에서 많이 불리워진다.

(4) 거릿제 또는 街祭, 別祭

거릿제, 街祭는 제주시 삼양 일동과 도련 일동, 그리고 애월읍 상귀리 등 몇 군데서만 들을 수 있는 희귀한 명칭으로, 이 거릿제의 명칭은 ‘巷神之位’, ‘巷衢之神’, ‘境內無祀之神’ 등 거릿귀신이며 祭場은 거리 길가로, 거리에서 비명에 죽은 원혼들을 위한 제인 ‘거리都廳祭’가 유교식으로 변한 것이다. 상귀리에서는 ‘別祭’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상귀리는 上·下洞으로 갈려져 있는데, 7월 상정일에는 공동으로 제를 지내고 정월 상정일에는 下洞만 별도로 특별히 거릿제를 지내기 때문에 別祭라 한다. 특히 이 제를 치르는 경우는 제단이 上壇과 下壇으로 분리되는데 그중 하단제로 치러지고 제물도 모두 익힌 것으로 올린다.

(5) 기타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쌓아 올린다는 뜻에서 致誠祭, 建誠祭 그리고 성산읍 난산리인 경우 局祭란 명칭으로 치러지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고 먼 옛날에 어떤 지관이 이 마을의 지형을 보고는 마을제의 명칭을 局祭라 함으로써 일반적인 명칭인 酬祭를 사용함보다 복이 더 많을 것이라 해서 局祭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¹⁴⁾. 또한 제주시 노형동 해안 마을에서는 음력 초이레날은 할망당에 제를 지내고, 14일날은 할아버지 당에 제사를 지냈던 것을 비용도 많이 들고 가구수도 줄어 들어 지낼 수 없게 되자 지금은 유교식으로 바뀌어 지내고 있다. 제신은 하르방당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東堂之神’이고 할망당

14)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 제주대국어교육과, 1976. p. 75.

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西堂之神’이다.

3) 祭神

포제의 대상인 신격은 마을에 따라 1위에서 4위까지이며 같은 명칭의 신 위이면서도 그 성격은 마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 마을 수호신 1위만 모시는 경우 : ‘醜神之位’, ‘土地之神位’, ‘里社之神位’, ‘洞社之神位’, ‘石佛列位之神位’, ‘本郷之神位’, ‘巷衢之神位’, ‘醜祭之神位’, ‘里醜之神位’ 등 어느 하나의 神位를 지방에 써붙여 1위의 신에게만 행제하는 경우로 56개 마을 중에 40개의 마을이었는데, ‘里社之神位’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신명이 무엇이든 그 신이 마을을 차지하여 주민의 생업, 질병 등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다.

(2) 2위를 모시는 경우 : 첫째, 마을 수호신과 풍농신을 모시는 경우와 둘째, 마을 수호신과 원혼을 모시는 경우이다. 첫째는 ‘土地之神位’와 ‘醜神之位’ 양신에게 제의하는 곳이다. 이 경우, ‘土地之神位’는 마을 수호신이고, ‘醜神之位’는 농신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그 축문도 土地之神에게는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醜神에게는 농업에 관한 축원으로 이루어지며, 兩神중에 상위의 신은 醜神으로 생각되고 있다. 성산읍 온평리인 경우, 포신을 ‘尊靈之前’이라 하고 마을 수호신을 ‘別行大神’이라고 한다. 둘째는 마을 수호신과 원혼인 ‘境內無祀之神位’, ‘巷神之位’, ‘巷衢之神位’ 또는 ‘場神之位’라는 지방을 써 붙이고 행제하는 경우다. 이 경우 마을 수호신은 <상단제>로 지내며 원혼들은 <하단제>로 제를 지낸다.

(3) 3위를 모시는 경우 : 이 경우는 마을 수호신, 원혼, 무신 등을 모시는 경우로 마을 수호신에게 <상단제>, 원혼에게 <하단제>를 지낸 다음, 마을 곳을 위한 ‘都廳神’과 ‘本郷堂神’의 제의를 치르는 경우다. 都廳之神祭는 옛날에는 <都廳祭> 또는 <도청굿>이라 하여 향사 자리에서 마을곳으로 행하

던 것인데, 지금은 유교식으로 고사하게 된 것이다. 본향당신에의 제의도 당
곳 이외의 포제 때 하는 약식의 제의이다. 이외에 마을 수호신인 ‘里社之神
位’, 그 해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신인 ‘太歲之神位’, 콜레라, 마누라, 등 곳은
병에서 구제해주는 ‘別星之神位’을 모시는 경우(안덕면 덕수리)도 있다.

(4) 4위를 모시는 경우 : 마을 수호신인 醮神 이외에 ‘染疾之神位’, ‘牧童之
神位’, ‘諸首任之神位’를 모시고 행제하는 경우와 마을 수호신인 ‘里社之神’과
그 해의 干支를 알아보는 ‘太歲之神’, 本鄉堂神인 ‘七星之神’, 그리고 전염병
을 막아주는 ‘流行之神’을 모신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祝文에 나타난 祭神은 여러 種類가 있다. 56개 마을의 축문에
나타난 제신은 다음과 같다.

醮神之靈 18, 醮神之位 1, 醮祭之神 1, 里社之神 23, 里醮之神 1, 洞社之神
3, 土地之神 6, 社土之神 1, 石佛列位之神 1, 彌勒尊佛 1, 境內無祀之神 2, 巷
衢之神 1, 巷神之位 1, 本鄉之神 1, 尊靈之前 1, 別行大神 1, 諸神之靈 1, 都廳
之神 1, 場神之靈 1, 諸首任神 1, 染疾神 1, 牧童神 1, 太歲之神 1, 別星之神
1 등이다¹⁵⁾.

각각의 마을에서 마을신으로 모시고 있는 對象神은 醮神之靈, 里社之神,
里醮之神, 土地之神, 洞社之神, 등으로 마을의 特性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도내 56개 마을 祝文에서의 神名을 보면 醮神之靈(혹은 醮神之位, 醮祭之
神)으로 名稱되는 곳이 20개 마을, 里社之神(혹은 里醮之神)의 24개 마을,
土地之神(社土之神)의 7개 마을, 洞社之神의 3개 마을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외에 本鄉祭로 지내는 마을에서는 本鄉之神(북제주군 애월읍 광령이
리), 거릿제를 지내는 경우는 境內無祀之神(巷衢之神, 巷神之位)으로, 제주시
동회천의 경우 마을제 이름이 石佛祭로 佛敎的 性格을 띠고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은 石佛列位之神이다. 그외 여러 신명은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15) 신명은 71인데, 이것은 부락에 따라 1개신만 모신곳과 2~3개의 신을 모신곳이
있어 숫자가 불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特徵的인 것은 56개 마을 중 醮神之靈, 里社之神으로 불리는 곳이 44개의 마을으로 濟州島의 神名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의 特性에 따라 다시 분류되는데 農業生活을 하는 시골 쪽의 마을은 醮神之靈, 봉급 생활자가 많은 제주시 마을들은 里社之神으로 불려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마을제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祭日

제일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1년 1회 지내는 것으로, 이 경우는 正月 上丁日에 치러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 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中丁日로 연기하거나 亥日로 연기한다. 이를 或丁或亥라는 말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七月 달에 한번 지내는 경우(제주시 도평동, 외도일동)와 六月 上丁日에 치러지는 경우(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도 있다. 그리고 제주시 아라 일동의 醮祭인 경우 正月 初戊日에 치러지기도 하며, 정월달에 택일하여 지내는 경우(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도 있다.

둘째는 1년 2회 지내는 경우로, 이 경우는 正月의 或丁或亥와 七月의 或丁或亥 두번을 지내는 것이다(북제주군 애월읍 광령1리).

셋째는 儒巫 1회씩 지내는 경우로, 정월에는 巫式 마을제(당굿)을 하고 칠월에는 儒式으로 醮祭를 지내는 것이다(제주시 노형동 해안부락, 내도동).

5) 祭의 場所(祭壇)

제의 장소는 포제가 치러지는 공간으로 常設 祭壇과 臨時 祭壇으로 이루

어진다.

상설 제단은 마을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이 제단에서 행제하는 것이다. 흔히 〈포제단〉 〈젯단〉 〈포제동산〉 등으로 불려진다.

임시 제단은 상설 제단이 없이 해마다 빈 밭을 하나 정하여 임시로 제단을 만들고 행제하는 것이다. 제장으로 선택되는 밭은 대개 무덤이 없고, 인가가 가깝지 않아 조용하고 깨끗한 밭으로써 방위를 보아 해마다 새로 정한다.

이 제단은 있는 곳이 56개 마을 중에서 34개 마을이며, 없는 곳도 22개 마을에 이른다. 그리고 이 제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념은 신성시하기는 하나 약하게 나타난다. 마을내의 무신당에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 노는 일이 없고, 용변을 본다거나 마소를 들여 먹이는 일이 없다.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포제단에는 흔히 마소를 놓아 먹이고, 아이들이 뛰어 놀곤 한다. 그래도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다. 결국 이것은 酬祭壇에는 巫神堂과는 달리 신이 항상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포제를 지낼 때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제단은 단지 제의 장소로서의 기능만 있다고 보고 있다.



6) 祭物

메는 산메를 原則으로 하고 있고 당일 메밥이 잘되고 안되고에 따라 祭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判가름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쓴다.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날 것으로 올린다. 그 種類는 다음과 같다.

가. 메류 : 稻(벼), 梁(조), 黍(기장), 稷(피)로 만든 메를 올리는데 오늘날은 기장과 피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쌀메 2기, 좁쌀메 2기로 대신한다.

나. 犧牲 : 돼지 쏘마리(거릿제의 경우에는 돼지 대신 액막이 용으로 닭을 쓴다)

- 다. 幣帛 : 광목이나 시렁목 또는 무명 3-4자 그리고 백지 1권
- 라. 果類 : 五果 - 柚子, 榲子, 栗, 乾柿, 大棗 를 쓰며 상황에 따라 굴, 사과, 배를 쓰기도 한다.
- 마. 고기류 : 소고기 말린 것 1, 절인 것 1(鹿醢, 鹿脯 대응), 바다고기 말린 것 1, 절인 것 1
- 바. 채소류 : 菁菹(무우채) 1, 芹菹 1
- 사. 祭酒 : 좁쌀로 만든 술, 쌀로 만든 술 등 다양하다.
- 아. 荊塩 : 소금
- 자. 毛血 : 돼지의 머리쪽에 있는 털을 조금 뽑아 작은 그릇에 넣고 거기에 돼지피를 조금 넣은 것을 香床에 올린다.

(祭物 陳設圖)



2. 別祭

別祭란 정월에 치르는 포제 이외에 특별히 치르는 유교식 마을제를 칭한다. 별제의 제일은 6~7월의 或丁或亥日이 원칙이며, 과거에는 해마다 행제

하던 마을도 있었고, 3년에 한 한 번씩 치르거나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가 심했을 때 택일하여 치르는 마을도 있었다. 그래서 별제를 ‘蟲祭’라고 하는 마을도 있다. 또 어떤 마을은 포제 이외의 또다른 무속곳으로서 ‘거리굿’ 또는 都廳祭를 別酬祭라 하여 포제와 함께 중요시했다¹⁶⁾. 별제의 신위는 마을마다 ‘司命大神’으로 ‘목숨차지 신’ 또는 ‘전염병을 막아주는 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별제를 따로 지내는 마을은 거의 없으며, 포제의 하단체로 치러지는 마을의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의 포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제단에 모신 신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하나는 거리굿이며 치병굿이었다는 무속의례의 변형인 별제의 신이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별제는 무속적 당굿이 유교식 형식의례로 변해가는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며, 堂神의 기능이 生産·物故·戶籍·帳籍을 차지하여 마을을 수호하며 해마다 풍농과 치병을 관장한다고 여겨 그를 위한 마을굿을 행하던 것이, 포제는 풍농굿으로, 별제는 치병굿으로, 남자-유교, 여-무속으로 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⁷⁾.

3. 海神祭



어업을 관장하는 神에게 祭를 지내는 것으로 전체 마을제로 치러지는 포제에 비해서 해촌 특히 漁網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祭이기 때문에 海神祭를 지내는 마을은 그리 많지 않다. 濟州島는 섬으로 되어 있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바다에 대한 畏敬心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安全과 豊漁를 기원하는 祭의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의외이다.

16) 진성기, 『南國의 民俗-濟州島歲時風俗』, 교학사.1980. pp. 99-101.

17) 濟州道誌 第3卷, 제주도, 1993. p. 1121.

祭名 : 구물코스, 요왕제, 海神祭 등으로 불린다¹⁸⁾. 구물고스는 過去에 주로 사용되었던 名稱이고 海神祭는 요즘에 들어서 주로 불려지는 名稱이다. 그리고 요왕제는 해변에서 豊漁와 海外 家族의 안녕을 비는 의례로서 심방(巫覡)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

祭神 : 富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도깨비신을 비롯하여 ‘海神’, ‘船神’, ‘無主孤魂神’ 등이다.

祭日 : 祭日은 一定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正月에 날을 택할 수도 있고 漁場 形成 時期에 적당한 날을 받아 행하게 된다.

祭儀管理 : 보통 漁村에는 그물집(그물계)과 같은 것이 몇 개씩 있는데 각각의 집에서 主管을 하여 치러졌으나 요즘은 合同으로 한다. 準備는 포제를 準備할 때와 大同小異하지만 祭官과 祭物 등이 규모가 작다.

祭官 : 제의 규모를 갖추어 지내는 곳에서는 3현과 집사 등 4~5인의 제관으로 행제한다.

祭物 : 포제때의 제물과 거의 같은데, 돼지 희생을 쏘마리 올리지 않고, 잡아서 그 머리만 올리며, 도깨비 신에게 올릴 제물은 수수떡, 수수범벅 따위를 따로 준비한다.

祭次 : 제차 및 제의 방식은 부락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닷가 현장에 제상을 세워 제물을 진설하고 지방을 써붙여 행제한다. 먼저 삼현과 집사가 4배하고 분향, 헌폐례,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철번 두하고 하직하면 상단제가 끝나고 다음에 〈지물음〉을 한다.

〈지물음〉이란 상단제에 올렸던 돼지머리와 모혈을 창호지에 곱게 싸들고 해상으로 나가서 금년도 어장 잘되게 해 주십사는 몇마디 축언을 하고 돼지머리와 모혈을 바닷물에 던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상단제가 끝나면 하단제를 지낸다. 제신은 해상의 고훈들이다. 해안가 바다에 제물을 진설하는데, 멧밥은 큰 양푼에 하나 가득 떠서 그대로 제상 한

18) 현용준, <제주도의유식부락제>,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p. 242.

가운데 올려놓는다. 제관은 아헌관과 집사가 되는데, 헌관은 入就 拜禮하고 焚香한 후 집사가 부어주는 술잔을 받아 獻爵한다. 그러면 집사는 술잔을 받아 멧밥 양푼 둘레에 올려 손가락을 하나 멧밥에 꽂는다. 이렇게 술잔이 30여 개 올려지고 손가락도 술잔 수대로 양푼 둘레를 돌아가며 꽂혀지는 것이다. 그런 후 독축을 하고 <잡식>을 하여 하직한 다음 잡식한 것을 바닷가로 들고가 금년 어장 잘되게 해 주십사는 몇마디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제물을 떠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계원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해신제는 그 의례방식이 유교적 제의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정형화하지 못하고 '지문음'과 같이 무속의례의 잔영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4. 帝釋祭

帝釋祭란 農業 管掌神에 대하여 豊農을 비는 마을제이다. 이 제는 지금은 거의 행하지 않는 제이다. 帝釋祭의 由來는 정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說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陸地 어느 고을에서 매우 凶年이 들어 農事가 전부 안 됐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잘 됐다. 그 理由를 알아본 결과 帝釋神을 위했기 때문이라 하므로, 이때부터 帝釋神을 모시기 시작했다”한다¹⁹⁾.

名稱：帝釋祭

祭神：帝釋神

祭日：동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조나 모밀 播種 前後나 7월 14일이다.

祭儀 場所：마을마다 <제석동산>이라 하여 마을 곁 언덕에 常設祭場이

19)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 제주대국어교육과, 1976. p. 78.

있었으나 지금은 지명만 남아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祭儀 準備 : 鄉長(이장)이 택일하여 동리하인에게 연락하면 그 하인은 마을안의 각가호마다 돌아다니며 “제석제 제물 받으러 왔다”고 한다. 그러면 가호마다 밀,모밀 등 몇 되씩 내어준다.

祭物 : 도래떡, 바다고기, 과일, 감주, 메 등이다.

行祭 : 동네 下人이 祝文이나 지방도 없이 행했다. 동리 하인이 각 가호에서 거뒀던 곡식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쌀과 술을 저서 제석동산에 올라가. 제장에서 술을 얹혀 멧밥을 짓고, 술채로 단에 올리고 다른 제물을 진설한다. 제단뒤에는 1m 정도의 대 끝에 백지 1장을 가로 묶어맨 <帝釋旗>를 꽂고 焚香, 拜禮, 獻爵, 撤籩을 한다. 철변을 할 때는 각 제물을 조금씩 술잔에 떠놓아 제단 옆 흠에 붓는다. 이것으로 하인은 제의를 끝내고 향장(이장)에게 행제했음을 알리고 남은 제물 얼마를 향장(이장)에게 드린다. 리민들은 제장에 제석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제석제를 지냈음을 안다. 그러나 제석제는 해방 후 동리 하인제도가 없어지자 반별로 순번을 정하여 몇해 동안 제를 계속하다가 폐지되었다 한다.

이 帝釋祭는 무의인 <제석굿>이 儒式化되어 동리하인으로 하여금 마을제의 하나로 행제케 된 것이라 보고 있다²⁰⁾. 그 이유로 제석제는 무의에서 보듯 메를 술채 올리는 점, 旗을 꽂는 점, 그 제관이 매우 격하되어 있는 점 등을 특색으로 들었다.

5. 기타 마을제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치르는 祈雨祭나, 마을에 천연두가 들 때 행했

20) 현용준, <제주도의 유식부락제>,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p. 246.

던 별행(別行), 우마번식을 기원하는 백중제, 그리고 산신제(제주시 아라 1동) 등을 들 수 있다. 산신제는 두 개의 신위가 있는데, 하나는 한라산신지위이고 또 하나는 한라산토지신위이다. 제에 대한 준비는 포제와 대동소이다. 처음에는 한라산 개미목에서 지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겨울에 지내니 눈이 많이 와서 제물을 운반하는데 인명피해가 많아서 李約東목사가 제단을 현 위치인 산천단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단을 목사가 제단을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 산신제는 관이 이 제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한라산신제는 관의 주관하에 전도적 차원에서 행하던 제의에서 아라동 마을제 차원으로 현재 변천되어 행해지고 있다.

6. 祝文

各各의 部落에서 치러지는 부락제에서는 그 部落民들의 가지고 있는 念願을 祝文이라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部落神에게 告해진다. 각 部落의 가지고 있는 特殊한 狀況, 生活의 基盤이 되는 여러가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1) 축문의 구조

어떤 集團이든지 그 集團의 秩序를 維持시키기 위해서 그 集團에 맞는 規範을 만들어 생활하듯이 祝文에서도 일정한 形式이 있음을 볼 수 있다. 祝文이 일정한 形式은 朱子學의 流入과 더불어 <朱子家禮>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일정한 形式없이 죽은자를 애도하는 內容으로 자유스럽게 지어졌던 것을 朝鮮朝의 基本綱領에 따라 家禮가 確立되고 普遍化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²¹⁾.

祝文은 序頭, 頌神, 祈願, 祭物, 末尾의 구조²²⁾로 되어 있다.

(1) 序頭

마을제의 序頭に 나타나는 일정한 形式은 다음과 같다.

- ① 維歲次 某年 某月 某日 獻官 敢昭告于 神名
- ② 維歲次 某年 某月 某日 幼學 敢昭告于 神名
- ③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神名
- ④ 里社之神.....

여기에서 보면 祝文의 序頭 부분은 별다른 變異 樣相없이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일정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①,②,③,④의 경우 다른 形式의 文章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같다. ①번의 경우 祭를 主管하는 獻官의 名稱으로 祝文을 고하고 있으며, ②번의 경우는 祭儀가 儒學을 崇尚하는 儒學者에 의해서 치러진다는 의미뿐 별다른 뜻을 찾아볼 수 없다. ③의 경우는 ①,②의 경우와 같은데, 某年 某月 某日이라는 干支를 일일이 이야기하는게 귀찮으니까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편리하게 얘기한 것뿐이다. ④의 경우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일 뿐 實際 部落祭를 행하는 祝文에서는 ①이나 ②의 類型으로 形式을 갖추어 고하게 된다.

(2) 頌神

이 부분은 마을신을 稱頌하는 內容으로 짜여지게 된다.

“밝고 밝으신 신이시여, 은택을 내려주시는 신이시여, 萬物을 主管하시는 신이시여, 海上을 管掌하시는 神이시여” 등등의 신을 稱頌하는 辭說을 읊고서, 그 稱頌을 받고서는 祈願을 아니 들어주지는 못하도록 하면서 祈願하고

21) 표인주, “전남촌제의 축문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p. 22.

22) 앞의 책, p. 42.

자 하는 이야기를 신에게 고하게 된다.

(3) 祈願

본격적인 祈願이 이루어지는 節次이다. 여기에서는 각 마을의 特性에 따라 祈願이 內容이 달라진다.

(4) 祭物

다음으로는 祭神에게 음식을 권하는 內容이다. 이리이러한 제물을 올리오니 흥향하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末尾

祝文의 제일 마지막이다. 모든 마을에서 共通的으로 '尙饗'이란 단어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尙饗'이란 말 대신에 '謹告'라고 끝을 맺는 경우(표선면 성읍리 하단축)와 기원의 내용만 말하고 그대로 끝을 내는 경우(구좌읍 월정리 하단축)도 있다.

2) 축문의 내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축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각 마을에서 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內容으로 分類를 해보면 몇 개의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모든 마을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豊年을 祈願하는 內容이다. 農事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農耕地域에서는 農事가 大豊이길 바라고, 바다를 주무대로 漁業을 生業으로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豊漁를 바란다. 濟州島는 다른 지역과 달리 農業, 半農半漁, 半農半畜의 생활로 이루어져 있어 豊年에 대한 관심은 濟州島民 모두의 關心이라 할 수 있다. '五穀豊登', '五穀豊穰', '所得增大', '穀物豊登', '豊厥五穀', '時和豊年', '百穀用成', '百穀豊登', '穀之成

熟', '俾登五穀', '歲比豐穰', '海物豐厥'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② 家畜의 繁盛하기를 바라는 內容이다. 農耕社會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家畜에 대한 祈願을 담아내기도 한다. 소나 말과 같이 농사와 관련있는 가축들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개, 닭, 오리, 거위와 같은 가축들도 마찬가지이다. '家畜繁殖', '蕃息六畜', '六畜繁盛', '蕃其六畜', '六畜繁殖', '牛馬繁盛', '人案畜蕃', '畜不呵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③ 바람이 순하게 불기를 바라는 內容이다. 제주도는 三多의 고장이라 하여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다. 바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調雨順風', '雨順風調', '瀛海風息' 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④ 蜜柑이 잘 되기를 바라는 內容이다. 濟州島는 柑橘農家가 상당히 많다. 감귤농사를 하는 마을에서는 감귤에 대한 풍작을 기원한다. '蜜柑果樹', '果實豐作', '柑橘成長'의 표현이다. 그런데 감귤에 대한 풍작 기원은 56개의 부락 중 단 3개의 마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축문이 과거에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를 꺼려하는 마음과 감귤도 하나의 농사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病을 막게 해 달라는 內容이다. 사람에게는 傳染病을 비롯한 모든 병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하고, 農作物이 病蟲害로 피해 보지 않기를 기원한다. '竝無疾疫', '時疫怪疾', '瘟痘厲疫', '病蟲災害', '病蟲豫防', '有疾斯療', '育畜病疾', '民無疾苦', '豫防疾疫', '杜絕瘟痘', '滌掃癘疫', '人無疾厄', '不侵癘疫', '雜虫驅除', '克消蠱蟻' 등의 표현이다.

⑥ 子息과 家庭에 대한 祈願의 內容이다. 濟州島民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全國에서 敎育熱이 가장 뛰어난 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就學兒童', '進學成就', '立身揚名', '家家安樂', '人人壽福', '戶戶太平', '人人安樂' 등의 표현이다.

⑦ 마을과 가정에 미칠 재앙과 액을 없이하여 주고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內容이다. '彌災致祥', '除災致祥', '消禍致祥', '吉祥必致', '彌災降福', '有災消滅', '轉禍爲福', '辟邪進慶', '三災八難', '輸納幸福', '司我諸福', '永世康寧', '穰

拔疾厄' 등의 표현이다.

그외에 농기계 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내용, 기업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 里勢가 擴張되기를 기원하는 내용, 자동차 사고를 방지해달라는 내용,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도둑이 없기를 바라는 내용, 액운에 당한 비명 잡귀에 의한 피해방지, 이웃간 화목, 父慈子孝男忠女貞兄友弟順夫妻和睦에 대한 내용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원을 한다.

특히 이 祝文은 예전에는 漢文으로 써서 모든 사람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祝文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을 토대로 축문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祭神名과 祝文의 내용 사이에 연관성이 거의 없이 고해진다는 점이다. 酬神이면 농경에 대한 축원, 土地之神이면 마을 수호신에 대한 축원 등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내의 각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문을 보면, 이러한 연관성이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원에 대한 추상성이다. 축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기원도 많이 나타나지만 간략하게 '惠我民域'이라는 간단한 말로 모든 기원이 내용을 끝내는 마을도 상당수에 이른다. 56개의 부락중에 8개의 부락이 이와같이 간단하게 고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축문들은 祭神名만 다를 뿐 형식이나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다. 이것은 축문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다. 각 마을에서 처음에는 전부 이런 간단한 기원이 형태로 고해지다가 점차로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축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神靈觀이 多神多靈으로 되어 있다²³⁾. '酬神之靈', '土地之神', '里社之神'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신이 축문속에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신들이 제각기의 직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들은 '酬神之靈'과 같은 신들은 위에서 하강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거릿제에

23) 현용준, <제주도의유식부락제>,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p. 246.

서 행해지는 ‘境內無祀之神’을 비롯한 많은 신들은 孤魂 無託의 신으로 冤魂 孤魂의 원한의 맺혀 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신령관은 우리의 土俗 的 信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남성사회의 유식마 을제 기반도 역시 토속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Ⅲ. 巫式마을제

1. 堂굿의 種類

濟州島內의 마을 대부분은 마을과 家庭의 安寧을 비는 당의 어떤 형태로든지 1개소내지 많으면 3-5개소가 있어 대략 300여개소의 당의 있다고 推測되고 있으며, 이 당에서는 마을 全體 또는 個人의 福利를 위하여 女性들의 主管下에 당굿이 이루어지고 있다.

本郷堂이란 마을을 차지하여 마을을 守護하여 주는 신의 거처이면서 당굿이 이루어지는 祭場²⁴⁾으로 각 마을마다 반드시 하나가 있게 된다. 이 신의 職能은 出生, 死亡, 戶籍, 帳籍 등으로 주민의 모든 일을 主管하는 神이다.

이 本郷堂에는 일년내내 크고 작은 儀禮가 행해지게 되는데, 마을 전체가 모여 합동으로 마을을 守護하는 당신에 대해 크게 하는 굿을 당굿이라 이르고, 一般 家庭에서 生死, 疾病, 生業, 季節 등을 차지한 神靈들을 청해서 축원하는 굿을 일반굿이라 한다²⁵⁾. 일반굿은 그 대상이 全島적으로 공통한 일반신이니만큼, 그 굿도 온 島內가 거의 같으나, 당굿은 각 마을마다 對象神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례의 내용이 다르다. 祭日은 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와 擇日하여 하는 굿이 있으며 過去에는 1년에 正月의 新過歲祭, 二月의 영등제, 七月의 마불림제, 十月의 시만국대제(新萬穀大祭)²⁶⁾ 등 4번정도 당굿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신과세제와 영등제 정도가 열리고 있다.

24) 이두현 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p. 191.

25) 현농준, 『제주도민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 11.

26) 이두현 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p. 192.

(1) 신과세제

‘신과세’, ‘과세’, ‘과세문안’ 이라 불리는 것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 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을神에게 지난해의 감사와 새해의 행운을 비는 의례이다.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나 祭의 經費는 마을의 기금이나 각 家戶마다 쌀이나 돈으로 경비를 모아 充當한다. 그리고 제의 준비는 여성들이 준비하고 마을에 따라서 남성들이 獻官을 선출하고 제의를 치르기도 한다.

(2) 영등제

영등제는 영등신을 대상으로 하는 당굿이다. 영등신이란 ‘영등할망’이라는 女神으로 음력 2월 1일에 濟州島에 들어와 15일에 나가는 外來神으로 海産物을 增殖시키고 漁業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濟州島 全域에서는 당굿이 행해지는데 ‘영등굿’ 또는 ‘잠수굿’이라 하며 주로 1일, 13일, 14일, 15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은 일손을 멈추고 심지어 세수도 하지 않는다²⁷⁾. 이 영등굿은 잠녀나 어부를 위한 굿으로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祭의 形式은 신과세제와 비슷하나 씨드림, 씨점, 배방선이란 제차가 추가된다. 씨드림이란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린다 하여 좁쌀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며, 씨점은 海産物의 豊凶을 돛자리 위에 좁쌀을 뿌려 점치는 것이고, 배방선은 굿을 다 끝내고 약 50센치미터의 자그마한 짚배에 갖가지 제물을 싣고 영등신을 태워 送神하는 의식이다.

(3) 마블림제

마란 장마의 마 또는 곰팡이의 뜻이고, 블림이란 바람에 날려 보낸다는 뜻으로 住民들의 堂神에게 獻納한 神衣의 곰팡이를 바람에 쏘여 날리는 祭

27)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68, P. 62.

로써, 7월에 행하는데 주로 13일 15일에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을에 따라서 百中祭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牛馬 增殖祭의 意味도 있는 듯하다.

(4) 시만국대제

시만국대제는 9월내지 10월에 행하는 당굿으로써 秋穀을 收穫하고 그것으로 祭物을 차려 感謝하는 점에서 보아 秋收 感謝祭 性格의 祭라 할 수 있다.

2. 堂神의 類型

堂神이란 마을을 守護하는 神이다. 한 마을에는 반드시 그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을 모신 本郷堂이 있고, 그외에 祭日, 神名, 地名 등에 따라 당의 명칭이 붙는 당이 있다²⁸⁾. 그리고 이 당에는 거의 그 來歷을 설명하는 神話가 있는데, 이것이 본풀이다.

본풀이는 심방이 굿을 할 때 神의 來歷談을 노래하는 것으로써, 이 속에는 神의 出生에서부터 마을神으로 되기까지의 經路가 解說되어 있기 때문에 본풀이를 통해서 당의 어떻게 形成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대략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松堂系神堂

松堂은 구좌읍 일주도로에서 약 5Km 떨어진 산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상,중,하의 세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촌락에는 각각 당이 따로 있어

28)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 161.

웃송당에는 금백주라는 여신이, 셋송당에는 세명주라는 신이, 그리고 알손당에는 소로소천국이라는 남신이 모셔져 있다. 금백주와 소로소천국은 부부신으로 그들 사이에 아들 18인, 딸이 28인, 손자가 378인²⁹⁾이어서 그들이 도내 각 마을에 퍼져 본향신이 되었다 한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백주할망이 소로소천국을 찾아와 부부가 되어 산다. 거인인 夫神이 妻神의 권유로 농사를 짓다가 소를 잡아 먹은 것이 빌미가 되어 살림이 분산된다. 소로소천국은 오백장군 따님을 첩으로 삼고 딴 살림을 나고, 백주도는 임신한 아기를 낳아 길렀다. 아들이 일곱살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가 어리광을 부리면서 수염을 뽑으니 불효하다 하여 석함에 담아 유배시키니 용왕국에 가 용왕 말녀와 혼인한다. 식성때문에 용왕국에서 쫓겨나서 강남천자국에 이르러 무공을 세우고 귀향한다. 죽으라고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오매 부모들이 각각 도망가 죽어 본향신이 되고 아들들도 차례차례 각 마을로 가서 각각 堂神이 되었다’.

(2) 漢拏山 出生系 神堂

도내의 본향당신 중에는 한라산의 백록담 또는 한라산 셋어깨 소뭇된발 등 한라산의 어느 지점에서 출생하였다는 신이 많다. 이 신들은 그 신명을 부락명이나 당소재지명에 -하로산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르는 것이 특색이다. 이 당신들이 본풀이를 보면 간단하게 대략 세가지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다³⁰⁾.

① 한라산의 어느 지점에서 솟아난 몇 형제의 신들이 부모에게 쫓겨나서 한라산 일대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노루 사슴 등 수렵을 하여 먹으며 차차 부락까지 내려와 당신으로 좌정했다는 이야기

② 불효하다 하여 쫓으니 동해용왕국에 들어가 말녀와 혼인하고 돌아와 당신으로 좌정했다는 이야기

③ 쫓겨난 신이 산야에서 수렵을 하여 내려오는데 부인신이 목이 말라 산돼지 발

29) 그 수는 심방에 따라 다르다.

30) 이두현 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p. 199.

자국의 물을 빨아 먹는 중, 돼지 털이 코를 찌르더니 그것으로 임신을 하는데, 그것이 부정하다 하여 夫神과 婦神이 다른 당으로 좌정했다는 이야기

(3) 外來神系 神堂

본향당신으로서 외래신이라 신화되는 당신들은 거의 서울 남산에서 출생하여 입도하거나, 간남천자국에서 출생하여 입도하였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입도의 이유는 그것이 여신이면 한라산 출생계 신당이나 송당계 신당이 남편감임을 별자리 보아 알고 찾아 왔다 하고 남신인 경우는 한라산의 산천영기를 구경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굉장한 무장이어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도망쳐 온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4) 海神系 神堂

해신계 신당이라 하는 것은 현재 돈짓당, 개당, 해신당, 영등당 등이라 부르는 당으로 어부, 어선, 어장, 해녀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당들이다.

돈지란 물가의 언덕 즉 둔치이고, 개란 浦의 뜻이니 돈짓당, 개당이란 곧 해변당, 浦堂이란 뜻이 된다.

이 해신당계 신당이 당신화들은 대부분 돈지한집, 개당한집, 돈지할마님, 개할마님 식으로 신명만을 호칭하거나, 이에 부부관계를 상정해서 돈지할으바님, 돈지할마님, 개할으바님, 개할마님이라 호칭하고 다음 축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기타 본향신당

본향당 신화로서 이상의 유형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간 있는데, 천상계인 것과 영웅의 신격화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천상계의 신들로서는 옥황상제말갓똥아가기가 일반적이며 그녀들은 부모에 불효한다거나 궁녀, 시녀에게 물밥을 잘 주지 않아 굶겨 죽인 죄로 이 세상에 유배되어 온 경우이다.

영웅신들로는 성산 본향의 김통정, 애월 상가당의 변찰방, 안덕 화순의 고선목 등의 남성과 구좌면 동복의 굴묵밭할망처럼 여성들이 있는데, 모두 실제적인 인물인 듯하다.

(6) 七日堂

이 당들은 보통 일렛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간혹 서당이라 하는 곳도 있다.

일렛당이란 제일이 매 7일인데서 명명된 것으로 신명을 일렛도, 일뤼할망이라 한다. 또 서당이란 당명을 따서 서당할망, 또는 서당일뤼라 부르기도 한다. '서'란말은 '서먹다'의 서에서 나온 것으로 '서먹다'란 말은 곡식이 익기 전에 거두어다 먹는 것을 말하며 또 아이들이 잘 빠져 죽는 沼를 서먹는 물이라고 쓰임으로 보아 서란 幼의 뜻이며 서당이란 어린 아이를 위한 당이라고 해석할 만한 것으로 신의 직능에서의 명명인 듯하다³¹⁾.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웃송당의 금백주와 알송당의 소로소천국 사이의 아들이 불효하므로 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리니 동해용왕국에 들어가 혼인하고 송당으로 돌아온다. 부모가 별거하라 하므로 부부는 송당을 떠나 내려오는데, 처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의 물을 먹다가 돼지털이 코를 찌르므로 이를 불에 태워 냄새 맡으니 돼지고기를 먹은듯 하였는데, 남편은 이를 부정하다 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낸다. 남편은 새금상의 아홉째 딸을 첩으로 삼았는데, 이 첩이 그만한 일에 귀양 보내느냐고 큰부인을 데리러가 보니 아들 7형제를 낳아 있으므로 큰부인과 자식을 귀양 풀어 온다. 처첩은 일렛당신이 되고父子들은 각 마을의 분향신의 되었다.

31)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 100.

(7) 八日堂

여드렛당이란 그 제일이 매 8일인데서 명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산당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당은 사신을 모시는 당이라 해서 널리 알려져 뱀 totem 숭배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나주 영산 금성산에 1년에 한 번 처녀를 제물로 받는 신이 있었다. 이 고을에 목사가 부임하면 해마다 과적이 되어 목사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목사가 자원하여 부임하였다. 부임도중 금성산 앞을 지나려니 妓童通引이 이 산엔 영기있는 신령이 있으니 下馬하시라고 한다. 그대로 가면 말발이 전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 신을 보기 위하여 무녀를 불러 굿을 하니 선대자 머리를 드리운 처녀가 나타났다. 인간이 무슨 신령이 있겠느냐 하고 제라한 신령을 뵈어라 하니, 이번엔 한 아구린 하늘에, 한 아구린 땅에 붙은 큰 구렁이로 변하여 나타났다. 목사는 여의주를 물지 않았으니 신이 아니라고 하여 포수를 불러다 뱀을 쏘아 죽이고 불살랐다. 뱀은 바둑돌로 변하여 청학처럼 날아 서울 종로 거리에 가 있었다. 이때 제주에서는 姜氏刑房, 韓氏吏房, 吳氏刑房 세 사람이 서울에 진상갔다가 이 금바둑, 옥바둑을 발견하고 귀한 것이라고 주웠다. 진상이 수월히 잘되고 보답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귀향하러 배를 타고는 바둑돌을 던져 버렸더니 대풍이 불어 항해를 할 수 없었다. 문점 후 선왕굿을 하니 순풍이 일어 항해가 좋았다. 오다 보니 어느샌지 바둑돌이 뱃장 밑에 와 있었다. 배가 제주 성산면 온평에 닿았다. 바둑돌은 여인으로 환생하여 본향신인 맹호부인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모든 마을이 다 차지한 신이 있고 토산밖에 비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하므로 使神 문씨영감의 길 인도로 토산을 찾아간다. 팔상망 중허리에 이르러 보니 新豊里堂神 개로육섯도가 활쏘기를 하고 있으므로 도망을 가다 뒤쫓아온 개로육섯도가 팔목을 잡으므로 더럽다고 칼로 자기 팔목을 깎아 버렸다. 용왕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그 양반 말씀을 잘 들어야 호호태평으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므로 개로육섯도에게 사과하고 부인이 되어 알토산으로 내려와 좌정했다. 하루는 여종을 데리고 삼만오리소에 빨래를 하러 갔더니 마침 앞바다를 지나다 파선당하여 표착한 왜놈이 이 미인을 발견하고 쫓아오므로 도망가 묵은 각단밭에 숨었다가 발견이 되어 윤간당하고 모두 죽었다. 시체는 토산리 신산마루에 묻었는데, 얼마후 가시리 강당장집 외딸아가가 6월 방아를 찧다가 하품을 하며 광증을 일으켜 죽게 됐다. 문점을 하니 토산당신의 탓이라 하므로 큰 굿을 차려 해 가니 병

자가 나를 위한 굿이면 켓문을 열어 명주를 풀어 보라고 한다. 그것을 풀어보니 뱀 새끼들이 뱃뱃 말라 죽어 있었다. 그 명주로 신다리를 삼아 굿을 해가니 그 따님이 파릇파릇 살아났다. 그 법으로 이 신을 위하고 이 신이 주는 흥협에는 명주로 다리를 하여 굿을 한다.

3. 巫儀의 祭次

당곳에서의 節次는 다음과 같다.

초감제 - 예명열림 - 본향드리 - 마을도액막음 - 자손들 괴문음 -도진

(1) 초감제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수심방이 젓상 앞에서 四拜를 하고,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巫歌를 부르면서 집행해 나간다.

베포도업침 - 宇宙開闢, 日月星辰의 發生, 山水·國土의 形成, 人物의 發生과 같은 太初的인 事實을 노래한다.

날과 국 섬김 - 굿하는 장소와 시간을 告하는 절차로써, 오늘은 00년 0월 00일 大韓民國 濟州島 濟州市 00마을에서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연유 닦음 - 왜 굿을 하게 되었는가를 神에게 아뢰는 대목으로 '마을에서 本鄉堂神을 모시며 살아온 역사와 수난, 그리고 마을에서 생겨났던 불의의 사고를 설명하면서 올해에는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고, 농사도 잘되게 하여 걱정할 일을 없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이러한 연유로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연유를 닦는 대목이다.

군문열림 - 하늘에 있는 '神宮의 門(군문)'을 열어, 신이 인간의 기원에 感應하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 올 의사 여부를 점을 치고 확인하는 절차다. 당곳의 군문열림은 '神堂 本堂의 門을 여는 것'으로 마을의 生産, 物故, 戶籍,

帳籍을 차지한 마을 수호신의 하강의 뜻을 묻는 것이다.

산반아 분부사됨 - 군문을 연 뒤에 신칼점과 산판점으로 神의 뜻을 묻고 神의 뜻을 알아내어 심방의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주잔권잔 - 굿 한자리가 끝날 때마다 신을 따라 온 雜神과 軍兵들에게 술을 대접하여 케우리는 것이다.

새드림 - 굿판을 깨끗하게 씻어 不淨을 없애는 의례로서 물을 뿌려 '새(邪)를 쫓고' 굿판을 淨化하는 것이다.

(2) 예명올림

列名올림의 뜻인듯 하다. 이것은 神을 청해 놓고 나서 이 굿에 참여한 각 家戶의 家族의 姓과 姓名을 모조리 올리며 복을 비는 제차이다.

'姓은 姜씨 初獻官님 일흔둘에 亞獻官님 姓은 洪씨 辛 둘에 終獻官님 姓은 李씨 마흔에 아홉 받은 공사외다. 다음으로 마을 대표 姓은 洪씨 서른 다섯 이룬 공사 받읍소서. 봄 석달 여름 석달 부귀영화 시키시고.....'

이런식으로 참석자와 가족의 행운을 비는 차례이다.

(3) 본향드리

본향당신을 청해들이는 祭次이다.

굿하는 日時, 場所, 理由를 노래하고 本郷神의 來歷談을唱한 후, 이 神을 청해 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唱한다. 그리고 신을 청할 때 쓰는 젓상(대령상)을 당의 출입구에 갖다 놓고 심방은 신칼과 감상기를 들어 춤을 추며 바깥에 나가 신을 모셔들이는 행동을 三回 반복한다. 이 때는 참으로 貴重하고 嚴肅한 순간이어서 일동이 모두 일어서서 조용히 하여 神의 오기를 기다린다. 심방도 아주 嚴肅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감상기와 신칼을 달달 떨며 엎드려 신칼점을 치고 뜻대로 안될 때는 심방의 눈을 부릅뜨고 술을 사방에 뿜어내며 야단을 친다. 이럴 땐 일동의 손을 비비며 어떤 이는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며 오시기를 빈다.

本郷堂神의 자리에 들게 되면 굿을 의뢰한 마을의 대표되는 三獻官이 焚香 拜禮를 하고 幣帛을 올리며 燒紙를 살고 잔을 올린다. 이때 심방은 옆에 서서 三獻官을 비롯한 온 마을의 복을 기원하여 준다. 다음에 飲福을 하고 軍翁놀이가 시작된다. 軍翁놀이는 神을 좌정시킨 후, 굿 자리의 흥을 살려 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軍翁을 놀릴 때는 <탐불>, <서우첻소리>, <풍류노래> 등으로 흥을 돋군다. 이때 마을 사람 모두가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즐겁게 논다.

다음에 신에게 음식을 接待하고 雜神을 대접하는 삼천군병사권이 있게 된다. 원래 軍兵이란 亂離에 죽어 이승도 못가고 저승도 못가서 떠도는 下位 雜神으로, 이 배고픈 신들에게 술과 음식을 待接하는 儀禮다.

(4) 마을도액막음

마을의 厄을 막는 제차다.

액막이는 우선 마을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을 먼저하는데 닭의 모가지를 잡아 빙빙 돌리다 밖으로 던진다. 이를 <목숨대명>이라 하여 사람의 목숨대신 닭을 죽여 사람의 액을 막는 것이다. 도액막음이 끝나면 각 집안의 액을 막고, 환자의 穢을 들이고 끝난다.

(5) 자손들 괴문음

참가자 각 家戶의 福을 받고 一年間의 길흉을 점쳐 보는 것이다.

(6) 도진

당곳이 끝났음을 고하고 神을 모두 돌려 보내는 儀禮로써 神들의 位階順으로 神名을 부르면서 돌아가십사고 노래를 부른다.

4. 祈願의 內容

(1) 神의 性格

本郷堂뿐 아니라 濟州島의 모든 당은 形成 來歷을 설명하는 說話가 있고, 說話가 길게 構成되어 있는 것을 본풀이 또는 본초라 하는데, 이 본풀이에 는 堂의 形成은 물론 堂神들의 職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속에서 信仰民들의 당을 위하면서 堂神에게 祈求하던 祈願이 內容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략 職能別로 神의 性格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祖靈的 性格

당신의 성격 중 하나가 祖上의 神靈을 모신다는 觀念이다. 玄容駿님은 이 根據로 ㉠ 마을神을 ‘祖上’이라 부른다.

㉡ 神名에 姓씨를 붙여 부르는 곳이 많다.

㉢ 마을 수호신의 이름에 姓氏가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神의 姓氏와 信仰民인 마을사람의 姓氏가 一致하는 것이 보인다.

㉣ 마을을 開拓한 實存 人物을 堂神으로 위하는 마을이 있는 점이다.

㉤ 信仰民의 血緣 祖上인지 아닌지는 分明하지 않으나, 過去의 傑出한 人物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마을이 보인다.

㉥ 信仰民과의 血緣 關係는 分明하지 않으나, 處女의 死靈이라든가, 非命에 죽어간 怨魂을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마을이 곳곳에 있다³²⁾고 말하고 있다.

② 山神的 性格

주로 山間 내지 中山間 마을에 많이 나타나는데, 狩獵을 擔當하는 神으로 山神, 山神大王, 山神百官이란 이름으로 불린다³³⁾. 이 신은 마을이 形成되기

32)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p. 175-176.

33) 앞의 책, p. 177.

이전, 漢拏山을 떠돌아 다니면서 사냥을 하던 神으로 肉食 食性的 壯士型 神이며, 대부분의 ‘하로산또’라는 土着神이지만 外來神도 있다³⁴⁾.

③ 農耕神的 性格

山間 마을의 堂神에 山神이 많은 것처럼 中山間 마을을 中心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農神이다. 이 農神은 山神과 夫婦로 나오는데, 山神이 肉食食性的의 神이라면 農神은 米食爲主의 神이라 할 수 있다.

④ 漁業守護神的 性格

海神이라는 이름 외에 ‘개당할망’, ‘개하르방’, ‘개할망’, ‘용녀부인’, ‘용왕’등으로 불리어지는데, 모두 海岸에 모셔져 있는 堂神이다.

이는 다시 船舶·漁夫를 수호해주는 어부 수호신과 잠녀 수호신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漁夫들은 매달 초 하루와 보름 堂에 다니며, 堂에 갔다 와서는 뱃고사를 지내고 海상의 안전을 기원하는데, 이 神에게는 반드시 돼지턱뼈를 올린다³⁵⁾.

⑤ 災殃神的 性格

마을神에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堂神을 잘 모시면 福을 주고 萬事가 잘 이루어지지만 잘 모시지 않으면 災殃을 내려 큰 災殃을 준다는 것이다. 마을내에 疾病,死亡, 凶作, 牛馬의 被害 등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성대하게 당굿을 치르며, 집안에 憂患의 있는 경우 個人的으로 치르는 모든 굿들의 災殃神的 性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선면 토산리 당신 ‘알토산 여드래한집’을 포함한 여드랫당 계열의 당신

34)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p.44.

한림읍 금악리의 당신 ‘황서국서’는 황해도에서 왔다 한다. 바다를 열게 하고, 말을 타고 제주도에 입도하여, 한라산을 오르며 대각록 일천마리를 잡고, 내려오며 소각록 일천마리를 잡던 사냥의 신이다.

35) 앞의 책, p. 45.

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⑥ 産育神, 治病神의 性格

農耕神의 職能을 가진 本郷堂神 중에는 産育神의 性格을 가진 堂神들도 꽤 있다. ‘불도삼승’, ‘여리불도’, ‘천신불도’ 등이라 불리는 신들로 祈子와 養育에 效驗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당들은 부젓도라는 신과 함께 모시고 있는데, 이 신은 허물, 음 등 피부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全島的으로 分布되어 있는 일렛당신이다.

(2) 祈願의 內容

곳이 시작되어 모든 신을 맞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차려 놓은 음식을 잡수도록 권하고 본풀이를 풀면서 祈求事項을 간절히 빌게 된다.

“성은 아무개 나온 선술 예명 올림수다. 과세문안 정중 오랏수다. 브리그슬 출런 왔수다. 그슬홍장 오랏수다. 춘하추동 스시절 노린역개 얻어먹은 역개 바치레 오랏수다. 주손덜이 오랑 상귀 올려가건 홀은 제물 잃은 제물 다 내수와 줍서. 멩과 복을 제겨 줍서. 주손 창성 부귀영화 시겨 줍서. 소원성취 제수대통 시겨 줍서. 농스깃건 오곡풍덩 육축번성 만물번성 추곡만발 각곡 성실웨게 허여 줍서. 모든 오만육축덜도 다 그찌 낙루하게 말앙 그늘화 줍서. 이 시국의 병난지중 가온디라도 할락산이 팽지웨나 천하각국 운영곳이 칠지라도 이 주손덜랑 소원성취 바램네다. 정월 이월 삼월돌 선돌 구름날까지 돌로 막아 줍서. 날로 막아 줍서. 병난지중 가온디 모든 시계돌림 모진 신병 모진 독감 도독적칼 강도덜 만홉네다. 이런 일 막아 줍서. 구셀 모략도 막아 줍서. 녁날 일 혼날 일던 멘송시겨줍서³⁶⁾”

위의 기원사항에 따라 信仰民들의 당곳을 치르면서 祈願하는 內容을 보면

3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 526~533.

크게 세 가지 觀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年例的인 行事, 곧 本鄉堂에서 치러지는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국대제와 같은 당곳에서 이루어지는 祈願이다.

여기에서는 一年내내 국가, 사회, 각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을내의 모든 사람들의 共同體的인 儀式에서 기원하는 내용으로 치러지는 신과세제의 기원에서부터 雨順風調, 잠녀 採取物 豐登등 해촌 생활의 윤택함을 기원함과 동시에 일년의 어획량을 가늠해보는 영등제, 牛馬增殖, 秋穀豐登 등을 기원하는 마불림제, 그리고 일년의 농사를 끝마치고 감사하는 秋收 感謝의 시만국대제에서의 기원이다.

둘째 각 가정에 憂患의 생겼을 때 개별적인 의례로 행해지는 일반곳에서의 기원이다. 이것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당곳의 기원과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실한 기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일렛당 계열의 당에서 이루어지는 기원이다.

셋째 여드렛당 계열의 당에 대한 기원의례로써 이것은 母系쪽으로 전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잘 위하면 福이 오지만 잘 모시지 못하면 집안에 해꽃이 하는 災殃神的 性格을 갖고 있는 神에게 기원하는 경우이다.

이런 기원들은 각각의 곳에서 독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을 하는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① 임신중에는 천지천왕 천지지왕 천지인왕 금공사 받음서. 옥황상제대명황도 금공사 받음서

② 저승돈은 환폐지전 이싱돈은 은전지화 받음소서. 천년오른 천보담 만년오른 만보담 마은대자(四十五尺) 상청도리 수물대자 하청도리 받음소서. 고리안동벽 고리신동벽 받음서. 살전지 받음서. 대백미 소백미 받음서. 더운메 돈메 받음서. 정성 받음서

③ 어느건덜 ㅎ쟁호민 공인덜 아니들멍 쟈덜사 아니 드오리카. 공든탑을 메와줍서. 지성이면 감천입고 유전이민 가사귀법이라. 삼신산이 불락주도 잔은 잡은 풀 안

3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 79-86.

테레 휘는 법이웨다. 이런 정성을 올려시니 만수무강 길농흙고 소원성취 시켜줍서.

또한 당에서는 개인적으로 비는 비념도 있다. 비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³⁸⁾.

① 윤유월달 초이틀은 근당하곡 전라남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송씨 할마님 낳는 날은 생산초지 죽는날은 물고 추지입니다.

② 시·읍 등에서 잠시 놀래오랏단 할마님 우망적선 오랏수다. 성은 고씨고, 현씨고,이씨외다.

③ 할마님아. 관승에도뿔리게 맵서. 입승에도 뿔리게 맵서. 우리나라 곳뿔손 놈의 나라 상한손 들게 말아줍서. 질날일 말아줍서. 맹장수 시겨줍서. 복장수 시겨줍서.

④ 오늘은 공거 먹영 목걸리곡, 애걸리곡, 신걸리는 법이웨다. 모든 걸 다 막아줍서. 열두가지 추원반상 출려오랏수다. 할마님아 다 도막아줍서

⑤ 올해 돈 하영버슬쿠다, 고씨어른. 새해 큰 밧을 사나 큰 우명날 일 나쿠다.

⑥ 할마님아 몬 막아줍서.창고고득 들어 갑네다. 할마님아

일반곳 경우는 ① 신들에 대한 축원³⁹⁾ ② 신들에게 돈, 폐백, 떡, 지전, 쌀, 밥과 같은 제물을 올림 ③ 소원성취 회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 비념의 경우 ① 신명과 직능에 대한 설명 ② 연유담음 ③ 기원의 내용 ④ 제물을 올리고 액막이 기원 ⑤ 개인에 대한 점 ⑥ 액막이 기원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당곳에서 이루어지는 기원의 내용은 일반곳과 개인 비념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에 좌정한 신에 대하여 축원과 직능을 밝히면서 시작하여 누가 어떤 이유에서 오늘의 제의를 치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성껏 제물을 올리오니 제물을 받으시고 기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돌봐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짜여지고 있다.

38) 조사자료,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1987, 7, 29.

39. 현용준님은 '공소'는 공신(恭神)의 잘못으로 축원, 제의의 뜻으로 쓰인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축원'의 뜻으로 파악해서 쓰기로 한다.

결국 내용은 신의 내력을 풀어줌으로써 신을 위로하고 신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올수 있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것들을 방지해 달라는 기원을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IV. 儒式 마을제와 巫式 마을제의 相關性

마을제란 마을 사람 전체 또는 일부분이 마을의 福利를 위하여 共同으로 管理, 執行하는 祭儀⁴⁰⁾라고 했을 때, 酬祭와 당굿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제를 행하는 절차까지 같은 형식의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행사 자체를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酬祭는 전체 마을의 福利를 위하여 치러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당굿인 경우는 개인적으로 각 가정의 無事 安寧을 비는 가정의례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酬祭인 경우 笏記에 따른 의식이 끝나면 祭를 罷하는데 비해 당굿은 말미에 마을 전체의 1년간의 吉凶을 점쳐 전달하는 도산받아 분부사름이 끝나고 나면 자손들 괴문음이란 祭次에서 각 가정별로 축원을 올리고,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시간을 상당히 중시 여긴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酬祭는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러지고, 당굿은 마을 전체를 위하고 아울러 각 가정의 행운을 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치러지면서도 後者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이것은 酬祭가 집안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남성들의 주관에 의해 치러지고 있고, 당굿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성들의 주관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각 마을에서 치러지고 있는 두 의례의 선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마을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선후 관계를 따질 때,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본향당신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고 포제를 치르는 경우

둘째, 포제가 끝난 후나 다음날 당굿을 하는 경우

셋째, 본향당에서 유교식 제의로 마을제를 치르는 경우

40) 현용준, <제주도의 유식부락제>,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 동간행 위원회, 1971. p. 228.

넷째, 본향당에서 포제 행제 시간과 동시에 제를 지내는 경우

첫번째의 경우는 제주시 삼양 3동에서 볼 수 있다. 원래 삼양 3동 마을제는 里社祭이고 신명은 里社之神이며 祭日은 입춘이 지난 음력 正月 上丁日을 원칙으로 지내는데, 제일 전날은 3제관이 할망당에 가서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서 里社祭를 봉한다. 이 경우는 새해 들어 마을일을 함에 있어 마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당에 가서 고한다는 의미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의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제주도의 많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을제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대평리인 경우 유식 마을제인 里酬祭에 쓰일 제물에서 음식을 조금 떼었다가 제가 끝난 즉시 제물을 차려 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광령리도 제가 끝나면 제물을 차려 소집사 중의 몇 명의 당에 가지고 가서 제를 올린다.

동북리는 4·3 사건 이후부터 포제의 지속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새마을운동과 迷信打破 등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포제가 행해졌던 당시에는 포제를 지낸 다음 정월 중에 당굿을 치렀고, 대체로 음력 1월 7일에 행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보면 마을 사람들의 유식 마을제인 포제를 중시하고 본향당신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고 여겨진다. 당에 가서 치르는 의례도 당굿으로 치르는게 아니라 당제로 형태를 축소시키고 유교식 행사로 끝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 만큼 제주도 각 지역에 유교의 보급이 잘 이루어졌고, 또한 옛날부터 중앙지배층의 입김이 거셌다고 볼 수 있으며, 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미신타파 운동의 영향과 유교의 영향에 의한 남성 우위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굿보다는 포제중심의 마을제로 전환되었으리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세번째의 경우는 당굿의 장소를 이용해서 유식 부락제로 제를 지내는 경우이다.

제주시 해안동에는 당이 두 군데 있다. 동쪽의 것을 하르방당이라 하고 서쪽의 당을 할망당이라 하는데, 음력 초이레날은 할머니 날이라 하여 할머니

니당에 제를 지내고 14일날은 할아버지날이라 하여 할아버지 당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당 자손들이 여기저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가구수가 줄어 독자적으로 제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교식 제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사수동도 포제와 당제를 지내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당에서 제를 모셨는데, 지금은 당에서 모시지 않고 포제때 포제를 모시고 난 후 그 옆에 상을 따로 하나 차려 당축을 고하기만 한다.

네번째는 용수리의 경우인데, 이 마을은 정월달에 치러지는 마을제를 客神祭 또는 天祭라 하고, 음력 7월에 행해지는 마을제를 醮祭라 일컫고 있다. 여기에서는 客神祭를 지낼 때, 같은 시간에 소제관 3명을 본향당에 보내어 본향당신에게도 제를 지냈다. 이 본향당신제에는 닭1마리를 희생으로 하고 그외 客神祭에 올리는 제물을 조금씩 올려서 笏記 부름이 없이 單酌으로 제를 지냈다 한다. 온평리의 경우는 醮祭를 시작해서 鞠躬拜 4배를 할 때는 근처에 있는 本郷堂에서 연물(무악기)를 쳐서 <삼석울림>을 한다. 당곳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귀덕리 경우는 당에서 유식 마을제로 堂祭를 지내고 심방이 巫式으로 비는 儒巫혼합의 특이한 형태로 변모되어 제를 행한다.

세번째, 네번째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식 마을제보다는 유식 마을제가 훨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당신에 대한 인사는 유식 마을제의 신령보다 같거나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세번째 유형에서는 당신에 대한 인사는 사라지고 단지 당은 마을제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식 마을제를 지내는 주체가 남성이면서 또한 유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마을 유지들에 의해서 마을제가 행해졌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식 마을제와 무식 마을제의 선·후 관계를 논한다면 무식 마을제인 당곳에서부터 마을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의례가 치러졌고, 다음에 유식 마을제가 행해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을 통해 남성은 유식 마을제를 여성은 무식 마을제인 당곳을 치르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사실 마을제의 역사를 알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을제의 단위는 마을이라는 소규모의 것인 만큼 다른 마을에서의 관심이 약하고 마을에서 기록한다고 하여도 보존이 오래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⁴¹⁾. 대략적으로나마 옛 문헌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속의 역사는 초기 증거물으로써 청동기 중의 거울, 방울, 칼 등에서 시작된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금속 무구인 명두, 방울, 신칼과 같은 종류이면서 같은 고조선 시대 단군신화의 천부인 3개와도 견주어 생각할 수 있다⁴²⁾.

다음으로 고대 祭天儀式의 集團 歌舞를 들 수 있다.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기록을 보면,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 迎鼓(夫餘條)
其國東有大穴名隧穴 十月國中大會迎隧神還於國東(水) 上祭之 置木隧於神坐
(高句麗條)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濊條)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
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如復之(馬韓條)
俗喜歌舞飲酒 有瑟 其狀似筑 彈之亦有 音曲(弁辰條)라 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먼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하늘에 제사지내고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집단가무는 원시종합예술로서 오늘날 굿과 흡사한 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적인 굿의 형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 대한 기록은 李能和의 『朝鮮巫俗考』에 언급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廣壤堂, 遮歸堂에 대한 이야기를 옛 文獻인 『東國輿地勝覽』, 『海東雜錄』, 『金沖菴集』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도에서도 옛부터 무속이 성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³⁾. 그리고 『東國輿地勝覽』,

41) 『韓國民俗大觀』 第3卷,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 202.

42. 이두현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문사, 1986, p. 157.

『東國歲時記』 등에 보면 <花盤>에 대한 기록이 있다.

濟州俗凡於山藪川池丘陵憤衍木石 俱設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共擎神
纛作儺戲 錚鼓前導出入閭里 民人爭損財錢 以賽神 名曰 花盤(東國歲時記)

이 기록에서 보면,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심방들이 신기를 들고 각종 악기를 치며 농악대(걸궁패)가 집집을 돌면서 굿을 벌이면 민가에서 재곡을 바쳤고, 그 재곡으로 대보름날 당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上代에는 당굿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진 형태의 <걸궁>과 당에서 정지 형태의 <당굿>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자의 형태가 일반인에게 넘어가 <걸궁>으로 남고, 심방은 <당굿>만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속은 고려조, 조선조를 거치면서 탄압을 받게 된다. 고려 4대 광종대에 이르러 과거제도가 실시되고, 유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무속에 대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土族婦女로 野祭 山川 城隍祠廟祭 親行者 皆杖一百⁴⁴⁾”이라 하여 탄압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령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궁중에서조차 굿이 행해졌었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은 제주 사람의 종교였고 그 정신적인 지주여서, 문화의 뿌리에 닿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학자들이나 관리들은 무속신앙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약화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李衡祥 牧師는 부임하자마자 무속신앙에 대해 강경책을 펴기 시작하여 당과 절 등을 헐어버렸고, 대신 관주도의 한라산신제를 유교식으로 지내기 시작하였다⁴⁵⁾.

제주도의 유식 마을제에 대한 문헌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李元鎭의 『耽羅誌』 지를 보면, “社稷壇 風雲雷雨壇... 城隍祠 在州南十六里漢拏山下 酺神廟在小林果園中.....”이란 구절이 보이고 있다⁴⁶⁾. 이 탐라지는

43) 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pp. 293-294.

44) 앞의 책, p. 161.

45) 현길언, <제주전설과 그 주변성>,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p. 315.

효종4년(1653)에 간행된 현전하는 최초의 읍지로서 내용도 상세하고 정확하여 제주도의 제반 사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미 이전부터 유식 마을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주도의 유식마을제는 고려말에 와서 주자학(성리학)이 전래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抑佛崇儒사상이 팽배하여 주자학이 통치이념으로 정립되면서 朱子家禮가 우리사회에 자리잡게 되고, 太祖 元年(1392)에 濟州鄉校가 설립되고, 太宗 16年(1416)에 旌義·大靜 양향교가 설립되어 先聖先賢에게 제사하고, 한편 유생들을 모아 儒書를 가르치게 되면서⁴⁷⁾ 마을제도 남성의 주관하에 유교식 제의로 지내게 되었으리라 생각할 때, 유식 마을제의 기원은 조선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을제는 마을 공동의 제의로서 치러지던 무속 행사에서 유교의 영향으로 점차 남성들에 의해서 미신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남성들에 의한 유식 마을제와 여성들에 의한 무식 마을제로 나누어지고 계속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⁴⁸⁾. 유식 마을제로 행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굿과 병행이 되었던 걸궁과 같은 놀이 형태의 문화가 존속되지 못하고 퇴조하고 말았다.



46) 이원진, 『탐라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pp. 87-89.

47) 『濟州道誌』 第3卷, 제주도, 1993. p. 874.

48) 玄容駿님도 <당국의 儒式化와 三姓神話>에서 濟州島의 村祭는 본래 純巫式 당국에서 先儒後巫式 竝立村祭方式으로 바뀌고, 다음에 純儒式 醮祭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

V. 마을제의 機能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오늘날까지 마을제가 각각의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마을제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작용되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제의적 기능

민간 신앙은 민간인이 신앙하는 전승적인 자연적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⁴⁹⁾라 할 때, 종교에서는 그 대상신에 대한 의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는 형식으로, 불교에서는 불공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마을에서는 마을제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와 같은 공인 종교 신자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민간인은 민간 신앙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인은 원래가 다양한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이고 신앙이 두터워⁵⁰⁾ 모든 사물에 신령이 있고,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공간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기에 모든 마을에 山神堂, 서낭당, 本郷堂, 醮祭壇 등을 마련해 놓고 정기적으로 제의를 지내게 된다. 제를 지냄으로써 잡다한 생활사에서 오는 여러가지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생의 이상과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적 색채까지도 얻는다 하겠다.

(2) 사회적 기능

49)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p. 332.

50. 임동권, <마을제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유>, 『한국민속학』 제26집, 민속학회, 1994. p. 342.

마을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성 계승, 둘째, 심적 유대와 협동성, 셋째, 민주 시민 양성⁵¹⁾, 넷째, 교육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를 보면 과거에서부터 수 백년 동안 조상들의 제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 계승하면서 행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도 그 마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전통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둘째, 마을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의 경비에서부터 행제 과정까지 마을 사람들 전체의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이탈자가 있어서도 안되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시는 제를 연기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제를 지내기 며칠전부터 각부락에서는 금줄을 치기도 하고 부정할 것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합심하여 금기를 지킨다.

마을제는 같은 지역에 살고,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같은 생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 목적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제의이다. 평상시 각기 독립된 일터에서 제 각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마을제를 치르는 과정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협동성은 곧바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요체가 된다. 당곳에서는 당신의 본풀이가 메인심방에 의해 노래로 불러진다. 당신의 본풀이를 노래하고 굿을 전개함에 따라, 참가자들은 각각 이 당신의 자손임을 확인하고 제일이나 제물, 제법 등이 본풀이에 설명되는 대로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단골에 소속되는가를 체험하고, 당신이 1년동안 안전하게 수호해 줄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재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데 기인해서 마을 공동체의 유대는 강화되고, 마을 사람들의 결속과 단합의 공고하게 되는 것이다⁵²⁾. 유식 마을제에서도 제의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행제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의 힘을 합쳐 모든 것을 처리한

51.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pp. 349~350.

52. 현용준, “무속신화의 사회적 기능”, 『심전김홍식교수화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0. p. 597.

다. 이러한 마을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공동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의 운명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정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마을제는 제사 공동체이면서 지연·혈연을 중심으로한 마을 공동체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마을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마을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마을제를 치르기 위한 여러가지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을 사람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면서 경비를 결산 공표함은 물론 마을의 예산·결산과 새해의 마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넷째, 포제의 경우 제를 치르기 전 3~5일(과거는 7일)정도를 합숙하면서 정성을 드리면서, 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를 엄숙한 분위기에서 교육시키게 된다. 특히 제관을 처음으로 맡게 된 사람들은 정성 기간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곧 마을을 수호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 축문을 쓰는 방법, 유교 제사법 등등을 알게 됨과 동시에 웃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웃어른에 대한 예의 등을 배우게 된다.



VI. 결 론

사람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집단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에 대한 동경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에게 기대고, 신들의 은혜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을제당이다.

마을제당은 유식 마을제를 지내기 위한 酬祭壇과 무식 마을제를 지내기 위한 堂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마을제당에서는 일년에 한 번 이상씩 마을 사람들의 모여서 신에 대한 의례를 지내게 된다. 신에 대한 의례는 일년 동안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과 각각의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 등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마을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치러지는 마을제의 내용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있는 각각의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에 대한 고찰을 해봄으로써 마을제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삶의 모습을 알아 봄과 동시에 유식 마을제와 무식 마을제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면서 마을제가 가지는 기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부락제는 여성들에 의해 치러지는 당굿과 남성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포제로 나누어 행해진다.
- ② 축문의 내용은 序頭, 頌神, 祈願, 祭物, 末尾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기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소망을 전달한다.
- ③ 당굿에서의 기원은 먼저 신의 직능을 본풀이로서 풀고 기원을 함으로써 신이 들어주지 않고는 안되도록 심방의 입을 빌어 고하게 된다.
- ④ 당굿과 酬祭의 先·후관계는 上古時代 때의 제천 의식에서부터 존재했

던 곳이 고려말에 전래된 주자학이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정립되고 太祖 元年과 太宗 16년에 濟州, 旌義, 大靜 鄕校가 설립되어 유학의 생활화 되면서 남성 위주의 유식 마을제와 여성 중심의 무식 마을제로 나뉘어져 치러지게 되었다.

⑤ 유식 마을제가 유교적 제의 형식을 도입하기는 했으나 완전하게 정형화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해신제에서의 '지문음'과 같은 무속의례의 잔영을 들 수 있다.

⑥ 거릿제에서의 境內無祀之神과 같은 신들은 孤魂 無託의 신으로 冤魂 孤魂의 원한이 맺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령관은 우리의 토속적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유식 마을제도 역시 토속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⑦ 남·녀 공동의 마을제가 분리되면서 그 이전에 곳과 병행이 되었던 걸궁과 같은 놀이 문화가 제주도의 마을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⑧ 마을제는 잡다한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에 대한 희망을 기원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 기능과 마을제를 통하여 공동의식을 갖게 되고, 우정을 다지는 지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마을을 통합시켜 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마을제에 대해서 간단한 고찰을 해 보았는데, 유식 마을제와 무식 마을제의 상관성과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한 언급이 되었을 뿐, 마을제 속에 투영되어 있는 도민의 의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자료

- 『제주도부락지』(1 - 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시, 경신인쇄사, 1992.
이두현 외, 『부락제당』, 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29호, 1969.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68.
-----,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93.
이원진, 『탐라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이능화, 『조선무속고』, 도서출판 동문선, 1991.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김병언, 『신가례편람』, 디딤돌, 1993.
강남주, 『남해의 민속문화』, 등지, 1992.
최덕원, 『다도해의 제당』, 학문사, 1988.
『心田金洪植教授華甲紀念論叢』, 동간행위원회, 제주문화, 1990.
『민간신앙』, 민속학회, 교문사, 1989.
『한국민속대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1.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한국민속학』 제26집, 민속학회, 1994.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통신 제주지사, 탐라인, 1994.

참고논문

- 현용준, “제주도의 유식부락제”, 『민속학논총』, 석주선교수회갑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 , “당곳의 유식화와 삼성신화”, 『제주도14』, 제주도, 1964.
- , “제주무속의 사회적 기능”, 『심전김홍식교수회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0.
- , “제주도 무속의례 연구”, 『제주대논문집7』, 1975.
- 표인주, “전남축제의 축문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 ,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회, 1990.
- , “제주도 사신신앙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회, 1983.
- 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장주근, “제주도 무가(1)”, 『국어국문학19』, 1958.
- , “제주도 무가(2)”, 『국어국문학22』, 1960.
- 최승순, “동제축문의 형식고”, 『한국민속학』 9집, 민속학회, 1976.
- , “동제축문의 내용고”, 『月出任東權博士頌壽紀念論文集』, 집문당, 1986.
- 현길언, “제주전설과그 주변성”, 『제주도언어민속논총』, 1992.
- 김종천, “무속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생활의식”,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부 록 ◁

- 축문자료

1. 제주시 연동

維歲次 壬申 正月 庚戌朔 初八日丁巳 初獻官 000 敢昭告于
洞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春丁 美報精禋 謹以牲幣 醴齊
粢盛 薦品式陳 祗薦于神 尙饗

2. 제주시 노형동 월산

醴神之靈 神位前 伏以 於赫明神 鎮我疆域 以生爲德 四我壽福 以食爲
天 貽我稼穡 以養爲本 出我六畜 靈應風著 匪令自昔 神若不惠 民何終
綠 降監在茲 極垂陰澤而民而畜 竝無疾疫 雨順風調 俾登五穀 彌災致祥
永世0樂 春秋匪鮮 福綠乃錫 於千萬年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
品式陳 明薦于神 尙饗



3. 제주시 노형동 월랑

維歲次 某年某月某日 干支 幼學000敢昭告于
醴神之靈 伏以 民生何恃 穀之成熟 日愉百穀 亦在人力 出力助人 人案
畜蕃 有鬣有角 庶登壽域 月元日丁 神其降監 齊誠默祝 佑我人畜 雨順
風調 如坻如京 時和歲熟 乃倉乃積 駉則三千 家家介眉 特其九十 人人
鼓腹 消禍致祥 凡民之生 彌災降福 莫非神德 齊薦精禋 謹以牲幣 醴齊
庶幾 來格粢盛 庶品式陳 明薦 尙饗

4. 제주시 노형동 해안

醮祭 祝文

維歲次 00七月 00朔 00日 00獻官 敢昭告于

醮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護我疆域 盛矣其德 除災致祥 人物咸寧 實賴
神后 值茲仲丁 敢昭伏唯 尊神特垂陰澤 有疾斯療 有災消滅 雨順風調
穀物豐登 六畜無復 人生安樂 謹以牲幣 禮果粢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尚饗

해안 堂祭

本鄉 東堂 祝文

本鄉 東堂之神 伏以 惟神最靈 司我里宮 吉祥必致 消災降禎 俱卽康功
安堵修居 令捧吉辰 莫賽如初 謹以 牲幣 粢盛 庶品 明薦 尚饗

本鄉 西堂 祝文

本鄉 西堂之神 伏以 惟神最靈 司我里宮 吉祥必致 消災降禎 俱卽康功
安堵修居 令捧吉辰 莫賽如初 謹以 牲幣 粢盛 庶品 明薦 尚饗

5. 제주시 원노형

維歲次 干支某月朔 某日 干支 幼學(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司我民物 彌災致祥 匪今自昔 今擇良吉 敢竭
微誠 群黎齋會 諸誠祝巷 神其眷顧 特司我境 衆惡諸疾 不入侵犯 育畜
病疫 遠驅山谷 伏惟明神 陰騭生靈 揔登春垵 皆躋壽域 五穀豐穰 乃倉
乃積 載薦明禋 庶幾孚格 謹以清酌 脯醢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
神 尚饗

6. 제주시 노형동 정존

維年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幾日干支模000 敢昭告于

里社之神伏以 厚德載物司我疆域民生何時日惟百穀穀之成熟 亦在人力出力助人有蠶有角(疹神方熾躋登壽域)鄉土再建卜築家宅多數幼蒙課程進益四民俱亨九敍共得月元日丁齊誠默祝神其降監佑我人畜 雨順風調 時和歲熟家家介眉人人鼓復消禍致祥彌災降福亢民之生莫非神德齊薦精禋庶幾來格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尚饗

7. 제주시 노형동 광평

維歲次 年 月 干支朔 日 幼學 姓名 敢昭告于

醜神之靈 伏以於赫明神 司我民物彌災致祥 匪令自昔 臘盡星回 正月元日 周禮驅儺 韓文送窮 群黎齊會 齊誠祝巷 衆惡諸疾 聞有四方 於蠶於角 間多癖病 神其眷顧 特四我境 如此災殃 遠驅山谷 伏惟明神 陰鷲生靈 泝湊吉祥 驅祛牛疫 摠登春台 皆 壽域 一面豐穰 五穀蕃熟 如梁如墉 乃倉乃積 載薦明禋 庶幾孚格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明薦于神 尚 饗

8. 제주시 동회천

吉寺石佛列位之前 伏以

於赫明神 司我闔洞 清潔祭壇 岩岩有像 自今以昔 有禱必應 新正吉辰 澤吉齊沐 盡心致恪 祝願鑑格 人人遂業 家家安堵 五穀豐登 六畜蕃殖 時疫怪疾 防送遠境 終歲無憂 報賽無斃 謹以香幣 粢盛醴齊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9. 제주시 서회천

里社之神 祝文

維歲次 00正月 00朔 初0日 00 獻官 何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盛矣其德 繫我民物 實賴爾極 爰及新正 梁牲差穀 物雖不腆
誠則아 恭惟明靈 普施陰鷲 弭災招祥 轉禍爲福 扇以和氣 屏彼妖孽 人
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蕃其六畜 瘟痘癘疫 乃驅乃逐 埤我一同 均
蒙嘉澤 敢溫鄙誠 薦此菲薄 神其洋洋 庶幾散格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
品陳明 明薦于神 尚 饗

10. 제주시 용강동

維歲次任申辰正月庚戌朔初八日丁巳獻官幼學000敢祈禱于

里社之神伏以於赫明神盛矣其德繁我民物實賴 再極爰及 新正潔誠羞穀物
雖 不腆盛則 靡感共唯 明靈普施陰鷲彌災 招祥 轉禍爲福 扇以 和氣 屏
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柑橘成長 滿庫豐實 蕃其六畜 瘟
痘癘疫 迺驅迺逐 俾我一同 均蒙嘉澤 敢渴蕃盛 薦此菲薄 神其祥祥 庶
幾散格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11. 제주시 영평 상동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鎮我疆域 與我稼穡敢薦誠非報賽無斃 謹以牲
幣醴齊粢盛庶品尊獻尚 饗

12. 영평하동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盛矣其德理我民物新賴爾極愛及新正潔誠差穀物雖不腆 誠則靡應恭唯明靈普弛陰鷲弭災招祥 轉禍爲福 扇以和氣屏彼天前子人人壽福家家安樂 豐厥五穀蕃其六畜瘟瘧疫乃驅乃遂俾無我壹洞均蒙嘉澤敢竭微誠薦此菲薄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于神尚饗

13. 제주시 아라 1동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 某日干支 幼學 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春戊 報賽精禋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尚饗

아라 1동 산신제

漢拏山土神祭

維歲次 00正月00朔00日00獻官000 敢昭告于

土地之神 鎮茲地方布德無量既多蒙德至誠明禋 神其保佑 大韓民國安我住民輸納幸福 除我諸殃 三災八難 官災口舌 病病盜賊永爲消滅 大韓民國國泰民安各自所願意得成功 謹以清酌脯醢幣帛祗遷于神尚饗

漢拏山神祭祝文

維歲次 00 正月00朔00日 獻官 000 敢昭告于

漢拏山神惟此山川有神靈明自古設鹽歲祀已文今擇吉日依舊明禋惟神監顧大韓民國尊我地方安茲居民僻邪進慶 三災八難官災口舌 病病盜賊 永爲消滅 大韓民國國泰民安各自所願意得成功 謹以清酌牲幣祗遷于神尚饗

14. 제주시 아라 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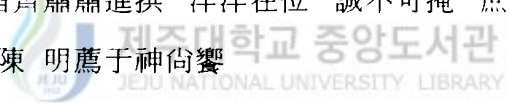
里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上戊 報賽精禋 謹以牲幣 醴齊
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15. 제주시 아라동 오등동

維歲次 干支 幾月 干支朔 幾日 干支 幼學 000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春丁 報賽精禋 謹以牲幣 醴齊
粢盛 庶品式陳 明薦尚饗

16. 제주시 오라 1동

維歲次 云云 幼學 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里爰有社厚我疆界履中央位臨上下祇德配于天澤洽於民博
厚庸載無物 不春時回新正人去萑 舊染自我新德俗庸庥厚父老咸集祀典復
學在位駿奔盛服宿齋肅肅進拱 洋洋在位 誠不可掩 庶幾格思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尚饗



17. 제주시 오라 2동 연미

里社祝文式
維歲次干支幾月幾朔幾日干支某官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伏以厚德載物惠我域民茲值春丁報賽精禋 謹以牲幣醴齊粢盛庶
品式陳明薦尚 饗

18. 제주시 오라 2동 사평

維年號幾年(歲次干支)幾月干支朔幾日干支某官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元日 美報精禋 謹以牲幣 醴齊
粢盛 庶品式陳 明薦尙饗

19. 제주시 오라 삼동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 某日 干支 獻官 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厚德載物 惠我域民 茲值春丁 美報精禋 謹以牲幣 醴齊
粢盛 庶品式陳 明薦 尙 饗

20. 제주시 이호동 현사

維歲次 干支 幾月 干支 朔 幾日 幼學 000 敢昭告于
里社之神 於赫明神 德其盛矣 惟人是依 日監在茲 司我諸福 致祥除載
日用飲食 實賴神休 茲於吉辰 敢齊微誠 默垂冥佑 賜福無疆 掃清乖癘
耆禱熾昌 介我稼穡 豐年穰穰 四隣和同 長享太平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尙饗

21. 제주시 이호동 오도

維歲次 干支 正月 干支朔 00日 干支 幼學 000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司我疆域 護我群生祛災致祥 實賴神名 茲當吉辰恭修禋
事 歲比豐穰 民無疾苦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祇薦于神尙饗

22. 제주시 이호동 동서

維歲次 00正月 朔 00日 獻官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惟神名靈 司我里疆 永尊厥居 實賴乃康 以時冥佑 何事
不臧 有福必降 有0則穰 爲厲爲疫 遠歐海陽 民生出征 咸支龜床 人無吟
呻 歲則豐穰 茲值月正 齊沐虔將 潔其性치 整其冠裳 式陳明薦 歆我心
香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尙 饗

23. 제주시 이호동 중앙

維歲次 0月0日 獻官000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司我疆域 護我群生 祛災致祥 實賴神名 茲當吉辰 恭修
禋事 歲比豐穰 民無疾苦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祗薦 于神尙饗

24. 제주시 내도동 당제

本郷之神 伏以 壹洞 主宰老痴無故實唯神佑稼穡是務吉蠲爲치庶鑑微誠
六畜蕃盛 五穀豐登 青苗蝗蟲 一一消除賜以景福終和且平 謹以牲幣醴齊
粢盛庶品式陳明薦于神尙饗

내도 포제 축문 1991년

리사지신께옵서는 본동을 수호하옵시고 인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동민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온 동민이 바라옵건데 각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
시옵고 오곡풍성한 수확으로 풍요로운 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동 부모형제들은 이 공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쁨과 마음과

혼을 함께 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 화합된 바탕위에 창출하는 거대한 힘으로 내도동의 발전을 가져오고자 굳은 결심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였습니다.

리사지신께서는 동민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시옵시오. 저희들은 온정성으로 제수를 마련하였습니다. 맛있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내도 포제 축문 1992년

세월은 흘러 서기 1992년 8월 9일을 맞이하여 초헌관 000 삼가 리사지신께 축을 고합니다.

신위께서의 가호로 온 동민은 아무런 재화 없이 92년을 송년한 우리는 이제 엿드려 감사의 지성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상사를 막아 주시고 동민의 안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오고풍성한 추수 해산물 취득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내도동 육성 발전에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굳게 뭉쳐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국민으로서 경로효친의 미풍 양속을 토착시켜 살기 좋은 내도동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동민의 정성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권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25. 제주시 연대

維歲次 1990년 정월 初獻官 000 삼가 里社之神위께 고하나이다.

제주시 외도 2동연대부락 주민들은 신위님의 은덕으로 무사히 지내오

던 바 다시 새해를 맞아 이에 두손 모아 엮드려 비읍니다. 올해도 오곡백과 풍성하고가축이 번성하며 수산이 풍요하고 모든 상업 순조로와 소득 증대 이룩되고 질병 재난 없이 하여 만복이 함께 하며 협동 단결 뭉친 힘 리세를 확장하고 안정과 질서 속에 이웃간에 화목하고 자라나는 2세대들 배우고 다시 익혀 입신양명 이룩하고 동량지재 되어이다. 여기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음식을 마련하였사오니 신위께서는 흠향하옵소서.

26. 제주시 도평동

維歲次 00年 七月朔 0日 00 都坪洞 初獻官 幼學 000 敢昭告于

醜靈之神 伏以 明明在上 照臨下土 司我疆域 立我烝民 於耕於鑿 莫非其極 雨順風調 時和年豐 五穀登穰 果實豐作 六畜蕃殖 內除諸厄 外護征軍 造化之跡 莫聞莫睹 體物不遺 默垂陰鷲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尙饗



27. 제주시 도두 1동

醜神之靈 伏以 於赫明神齊誠默禱 恭修歲禋司我疆域護我群生祛災致祥 實賴神名歲比豐穰民生無疾 雨順風調 車輛往來 無事故 道浦釣魚 出入無苦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祗遷于神尙饗

28. 제주시 도두 2동 사수동

維歲次 00一月戊寅朔 00 獻官 000 敢昭告于

社之神 伏以 神德至矣體物不遺實賴庇休月正吉日敢竭微誠神其保佑降之

百祥貧病災厄驅逐境外賦惠蔭護俾民壽康竝及耕牧無災穰瞻仰厚德報賽無疆 謹以牲幣醴齊菜盛庶品式陳明薦于神尚饗

29. 제주시 외도 1동

維歲次 00七月 00朔 00初獻官 000 敢昭告于

醜神之靈 伏以 洞民 同共誠致齊豈日報賽用伸未 伏唯尊靈 洞民行事 如意成就 諸災瘟疫 未然防止 德潤德化 種播西境 雨順風調 五穀豐登 病蟲災害 諸種不侵不犯 六畜繁盛 不崩不蹇 蜜柑果樹 病蟲豫防 蜜蜂滿箱 家屋建築 如意成事 就學兒童 進學成就 犯罪豫防 諸車輛農機械 事故豫防 企業繁榮 轉禍爲福 謹以牲幣 醴齊菓盛 庶羞式陳 明薦于神 尚饗

30. 제주시 외도 2동 월대

유세차 1985년 을축 정월 경인삭 초팔일 정유 초헌관000 삼가 리사지 신위께 고하나이다.

제주시 외도 2동 월대 부락 주민들은 신위님의 은덕으로 무사히 지내다 새해를 다시 맞아 두손모아 앞드려 비읍니다. 오곡백과 풍성하고 가축이 번성하며 수산이 풍요하여 모든 생업이 순조로와 소득증대 이룩되고 천재지변의 재화를 막아주옵시고 모든 질병 없이 하여 만복이 함께 하며 협동단결 뭉친 힘 리세를 확장하고 안정과 질서 속에 이웃간에 화목하며 후세교육 충실하여 입신양명하고 동량지재되어 이 부락 앞날에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성패와 제수를 차렸사오니 살펴 흠향하옵소서.

31. 제주시 용담 1동

維歲次 某年某月 干支 朔日 初獻官 000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於赫明神 司我疆域 彌災致祥 轉禍爲福 興我稼穡 生靈
和樂 豐禳五穀 產業隆盛 文武併出 商工進陟 豫防疾疫 遠消橫厄 特乘
蔭德 報賽無斃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于神尚饗

당축문

維歲次00日00月 00朔 00 00 獻官000 敢昭告于

本鄉之神 伏以 於赫明神 司我疆場天時人事無一不識詢謀僉同賽此明禋
神其顧亨蔭鷺 用伸產業得安海路利涉 謹以醴果明薦于神尚饗

32. 제주시 용담 1동 동한두기

醮祭祝文

維歲次 0年 0月 0日 獻官 000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以 龍淵洞 其麗百年 安其產業 樂此豐年 伊誰之賜 唯神如
天 家家打灰歲華載新 潔我牲幣 賽以明禋 神其歆格 佑我洞人 雲興百福
雪消千災 穀粟邱積 財帛山堆 家畜繁殖 穰穰一村 同我太平 瀛海風息
康衢月明 如是如是 分我平生 其樂淘淘莫非神佑 欲報其德 式薦籩豆非
必芬其香村青奔走 謹以牲幣 明薦尚饗

醮祭 彌勒祝文

維歲次 某年某月 某日 干支 獻官 000 敢昭告于

彌勒尊佛慈悲之下仰唯興大悲 雲非身現身巾身雲於三千世界無法說法灑

法雨於八萬鹿惱開種種 淀令以後脫鹿避厄三災八難一切病苦厄難永爲消滅 東西南北上下方 出入性還善人常逢萬事吉暢家宅永安土地豐穰 父慈子孝男忠女貞兄友弟順夫妻和睦離鄉者 錦衣還鄉永世無窮大願齊者敢竭鄙誠謹備香燈尊獻伏唯尙饗

33. 제주시 용담 2동 용문

洞社地之神

洞社祭 祝文

維歲次 干支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獻官000 敢昭告于

厚德載物 茲值上丁 惠我域民 美報精禋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尙饗

34. 제주시 용담 2동 흥운

維歲次 干支某月干支朔 某日 干支 幼學 姓名 000 敢昭告于

醴神伏以(龍潭 二洞 興雲部落) 於赫明神 鎮我疆域 主張風雨 造化闔關 司我農政, 匪今自昔 茲當歲朝 吉蠲奉祝 伏愉尊神 轉矣爲德 爲國出征 無患歸來 俾我人生 盜難防厄 榮農諸車 無故通行 莫匪神德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尙 饗

35. 제주시 삼양 1동

1) 上壇祝

維歲次 干支某月 某日 干支 濟州 北濟州郡 濟州邑 三陽 一里 獻官 某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盛矣 其德 繫我 民物 實賴 爾極爰及 新正潔
且穀物雖 不腆誠則靡忒恭惟明靈普施陰鷲弭災招祥轉禍爲吉 扇以和氣
屏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蕃其六畜 瘟瘧 瘟疫 迺駢迺逐
俾我一洞 均蒙嘉澤 敢竭鄙誠薦此菲薄 神其洋洋 庶幾歆格 謹以牲幣 醴
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서기 삼양 일동 대표 000 엎드려 올립니다. 동사지신님 정초 길일을
택하여 오늘 동민 일동의 성심성의껏 재물 올리며 비오니 동민의 번
영과 인재 배출에 인도해 주시옵고 천재지변과 질병에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고 전 동민의 안녕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곡과 야채농사에 풍
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승용차 화물차 일반 동력 농기계의 안전
운행을 바라옵니다. 약소한 희생과 폐백 및 음식을 엎드려 올리오니
많이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2) 下壇祭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 朔 某日 敢昭告于

巷神之位 伏以 幽顯殊途有]誠 必格肆余將事 自古在昔恭諭群靈情狀不
一無主而餒有寃 斯結或傷水火或依木石爲瘧日癘日疫 嘯風啼雨倏忽莫測
匪命橫厄亦可傷盡 茲以涓吉薦此芬苾提爾明儔來歆來格醉 斯飽斯解爾飢
渴饘謠藏怪默垂陰鷲物 侵人物를害駒犢扇以和氣錫我康年寧俾此一洞終
歲逢吉

서기 000년 삼양 일동 대표 000 엎드려 올립니다. 거리지신님 정초
길일을 택하여 엎드려 원하옵니다. 물, 불, 나무, 돌에 다치지 말게 하

시웁고 원동기류 및 거마에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며 액운에 당한 비명 잡귀계 동민에게 범치 말아 주시웁고 모든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비오면서 약소한 주식을 올리오니 많이 흠향하시웁소서.

3) 해신제

서기 000년 삼양일동 헌관 000 엽드려 비웁니다. 사해용왕님 정초 길일을 택하여 엽드려 원하웁니다. 사해용왕님께서 해상에 출어하는 선박에 폭풍우가 일지 말게 하여 항상 순풍 속에 출입항 하는데 사고가 없이 풍어많게 하시웁고 해삼자원도 풍성하게 이루고 동민 생명에 해를 주지 마시기를 바라오며 간소한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오니 많이 흠향하여 주시웁소서.

4) 백중제

서기 00년 7월 14일

삼양일동 대표 000 엽드려 올립니다. 원당지신님 삼양일동 동민 일동이 성심성의로 재물을 올려 비웁니다. 바라웁건데 동민의 천재지변과 질병에 대처해 주시웁고 농업, 축산 제반 사업을 풍요롭게 살피 주시웁길 바라웁니다. 약소한 재물을 올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웁소서.

36. 제주도 삼양 3동

1)해신제 축문

海神之靈 神位

維歲次 00正月00朔00日00獻官000 敢昭告于

海神之靈 伏以 大哉其位 盛矣其德 衣我食我 實賴爾極 爰及新正 薦此
非薄 物雖不腆 誠則未成 神其有靈 監我賜福 大開丙穴 舉釣多得 扇以
和風 機關無故 行船如式 千斯萬相 潛女無事 海物豐厥 家家富足 俾我
一鄉 永歲安樂 謹以粢盛 酒果幣禮 明薦于神 尚 饗

2) 리사제 축문

維歲次 干支某月 某朔 某日 干支 獻官 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盛矣其德 繫我民物 實賴爾極 爰及新正 潔牲
差恪 物雖不腆 誠則靡忒 恭惟明靈 普施陰鷲 弭災招祥 轉禍爲吉 扇以
和氣 屏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蕃其六畜 舉網多得 行船
無敗 出入無故 萬事亨通 瘟瘧癘疫 迺驅迺逐 俾我一洞 均蒙嘉澤 謹以
牲幣 醴齊粢盛 明薦于神 尚 饗

37. 제주도 도런 1동

上壇祭



維歲次 云云 初獻官 某 敢昭告于

社土之神 於赫明神 盛矣其德 繫我民物 實賴爾極 爰及新正 潔誠且穀
物雖不腆誠則靡忒恭惟 明靈普施 陰鷲弭災招祥 轉禍爲吉 扇以和氣 屏
彼妖孽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五穀 蕃其六畜 瘟瘧癘疫 乃驅乃逐 俾
我一鄉 均蒙嘉澤 敢竭鄙誠 薦此菲薄 神其羊羊 庶其歆格 謹以牲幣 醴
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下壇祭

維歲次 云云 終獻官 某祭于

境內無祀之神 幽顯殊途有誠必格肆余將事自古在昔恭惟群靈情狀不一無
主而餒有冤斯結或傷水火或依木石爲瘟爲瘧日癘日疫 嘯風啼雨條忽莫測
匪命橫厄 亦可傷*茲以新正薦此芬苾提爾明僖來歆來格斂妖雨藏怪默垂冥
鷺勿侵人物勿害駒犢扇以和氣賜我康樂俾我一鄉終歲元吉茲以清酌庶品薦
此尚 饗

38. 제주도 도련 2동

維歲次 某年某月 朔 某日干支 獻官 000 敢昭告于

里社之神 伏以 於赫明神 陟降九霄 司我疆域 至德無極 切施竝博 爰及
月正 潔牲差穀 物雖非薄 誠則致一 伏唯尊靈 杜絕瘟瘧 滌掃癘疫 老幼
康強 幼無夭折 人力輩出 耕車無事 有豐百穀 無損六蓄 謹以牲幣 醴齊
粢盛 庶品式陳 明薦尚 饗



39.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 1리

土地之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土地之神伏以眷我一境 司我壽福 爰及新正 遯祝之誠 食爲民天 百穀用
成 兵革不入 安堵如故 疾病灾厄 唯祛唯消 始設水道 失順易序 自下逆
上 0漑難望 伏願明神 紬紬垂察 保佑官係 整理直路 使此鄉民 均蒙玄擇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祇薦于神尚 饗

醮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醮神之靈伏以 於赫明神 司我稼穡 誕降嘉種 群飢0編0 以災以穰 能爲能
作 百穀大登 善良六畜 一境安逸 人無疾厄 除此新正 敢薦菲薄 謹以牲
幣 醴齊粢盛 庶品式陳祇薦于神尙 饗

40.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 2리(有信洞)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本鄉之神伏以 天覆地載 萬物留居 壽福康寧 唯神之德 今擇吉辰 仰訴哀
情 伏唯降監 感應微誠 家人和唱 永享碩福 雜疫橫厄 雲捲霧收 播種五
穀 稔多盈倉 收養六畜 不蹇不崩 禎祥福慶 隨時通徹 使戒一洞 永保太
平 謹以酒果明薦于神尙 饗

41. 북제주군 애월읍 상귀리

別祭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巷卷衢之神 伏以 於赫明靈 鎮我疆域 0以0庇 弭災致祥 茲值春丁 衆心
註香 神其格思 庶其洋洋 有去千災 降來萬福 驅除時疫 安頓衆情 蕃畜
牧穰 豐我農穀 俾斯鄉井 永世康寧 謹以牲幣 醴齊粢盛庶品式陳共尊明
薦于神尙 饗

42.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儒式洞祭

洞祀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洞祀之神伏以 於赫明神 守疆護界 居住衆庶 多0冥佑 今以吉辰 敢薦菲薄 自今以後 倍用懿德 伏惟尊靈 特垂陰隙 0及海陸 士農工商 出征步騎 安平俱吉 增其壽福 豐其穀畜 勿犯官厄 不侵癘疫 此洞戶戶 終歲平吉 陰佑之德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明薦于神尚 饗

儒式 本鄉堂祭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本鄉之神伏以 於赫明神 鎮我疆域 保我子孫 有禱必應 有願必得 弭災致祥 匪今自昔 今擇吉辰 敢薦菲薄 神其冥佑 錫降多福 田穀豐穰 家畜繁殖 掃除災厄 防陰疾疫 庶昭明神 如幾如式 謹以清酌庶羞明薦于神尚 饗

43.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土地之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土地之神 伏惟尊靈 司我疆域 體天體地 生生其德 主張風雨 造化00 助闕稼穡 年登民樂 壽我福我 永世無極 惠我蘇我 匪今自昔 物不庇厲 磅磚万物 反災改祥 闕境寧逸 歲歲獻誠 報賽無斃 牲幣粢盛 庶品式陳明薦 尚 饗

醜靈之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醜靈之神伏以 於赫明神 主張化柄 明明在上 赫赫臨下 司我民命 隨叨0
應 莫匪其靈 其靈維何 遂物生生 白穀豐登 民樂太平 雲0妖魔 民無疾
病 豐掃疫災 牛馬蕃盛 防逐官厄 不入訟政 風調雨順 水陸斯併 商人漁
人 緊折相度 咸載其德 各遂其性 庸擇吉辰 茲敢獻誠 特垂陰鷲 以佑以
寧 於萬斯年 報賽無斃 謹以醴酌 牲幣粢盛 庶品式陳 明薦尚 饗

44.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維歲次云云 幼學姓名 敢昭告于

醜神之靈 伏惟醜神 除災降福 保我人民 報賽無斃
土神之靈 保良社神 惠我恩德 願賜物豐 長養壽域
西神之靈 降臨西神 善養兒輩 以賜紅疫 全然無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尚饗

45.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維歲次某年某日 獻官某 敢昭告于醜祭之神 洋乎在上 質之在傍 有禱必
應 無敢不通 歲在乙巳 吉日維丁 里在明月 部落三洞 一心團體 敢竭微
誠 災去祥來 全鄉民平 雨順風調 五穀豐登 官災不侵 口舌除防 況且六
畜 民產爲重 各隨其性 滋滋繁盛 萬事如意 敢望神德 唯靈之神 微獻景
福

各斯亨斯 報賽無斃 謹以粢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尚饗

46.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土壇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醜神之靈 於赫明神 盛矣其德 繫我民物 實賴爾極 愛及月正 潔誠差穀
物雖不腆 誠則靡惑 慕唯明靈 普施飲隲 弭災招祥 轉禍爲福 扇以和氣
屏彼妖薦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闕白穀 蕃其六畜 漁採隆盛 船舶利涉
瘟瘴癘疫 迺驅迺逐 俾我一鄉 均蒙嘉澤 敢竭鄙誠 薦以菲薄 神其洋洋
庶幾歆格 謹以香幣 醴齊粢盛 庶品式陳明薦于神尚 饗

下壇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諸神之靈 幽顯殊塗 有誠必格 肆予捋品 自古在昔 恭唯群靈 情狀不一
無主而餒 有冤斯結 或傷水火 或依木石 爲瘟爲瘧 爲癘爲疫 嘯風啼雨
條忽莫測 匪命橫厄 亦可傷0 茲以涓吉 薦此菲薄 提爾明儔 來歆來格 醉
斯飽斯 解爾飢渴 飲妖藏怪 默垂冥隲 勿侵人民 勿害駒犢 扇以和氣 賜
我康樂 俾此一鄉 終歲之吉 謹以掬酌 庶品恭神尊獻尚 饗



都廳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都廳之神 自有茲土 有民有神 神民相依 治千百年 民之生繫 安樂於此
其孰不白 神之所賜 爰及新正 致誠靡惑 惟願神明 垂以陰隲 俾我一鄉
均蒙惠擇 謹以一春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尚 饗

47.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醜神之靈 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

德 自古有年 實賴再極 煽動和氣 讓穧疾厄 五穀豐登 六畜蕃殖 俾我一鄉 永受多福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歲事尚饗

48.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上壇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醜神之靈伏以 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歲首設享 匪今伊昔 伏惟尊靈 特垂陰澤 俾我一鄉 永受多福 煽動和氣 攘拔疾厄 百穀豐登 六畜蕃殖 行般利涉 舉綱必得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尚饗

下壇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境內無祀鬼神 人之死喪 其類不一 或以水火盜賊 或以飢寒疾疫 或爲墻壁頽壓 或爲虫獸噬⁰ 或因工築而亡躬 或在流包而顛躓 或陷刑辟而非罪 或遭歐鬪而橫厄 或爲冤抑而隕絕 或爲產難而夭絕 或爲強奪妻妾 或爲掠取財物 或行航行商 或採鮪採⁰ 或樵諸夫 或牛馬群牧 或危急自刃 或凶險自縊 祭祀不及 孤魂無托 陰結未散 作爲妖惡 日吉辰良 謹尊菲薄 携朋挈儔 來享飲食 俾我一境 以康以樂

49.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維歲次 干支 云云 敢昭告于

醜神之靈 伏以 於赫明神 司我里域 大哉其位 盛矣其德 每到歲首 設享

誠力 昭明在上 造化莫測 願爾蒼生 仰望恩德 攸靈攸司 顧視民族 衣我
粒我 莫匪其極 煽動和氣 穰拔疾厄 雨順風調 三農洽足 豐登五穀 蕃息
六畜 海女採業 物產麗錯 鱒魚其類 如崗捉得 順風駕帆 商財利益 天災
冰釋 百福雲作 日吉辰良 陳此菲薄 若是保佑 報賽無斃 俾我一鄉 終歲
安樂 謹以牲幣 脯醢采果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50. 북제주군 우도면 연평리

上壇祝(醮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醮神之靈 伏以於赫明神 鎮我疆域 居斯食斯
本業耕作 未生蠡斯 克掃蠡蟹 雨順風調 大登百穀 畜不呵噤 人不疾疫
兒無夭折 壯無禍厄 津有安涉 漁必多得 戶戶太平 家家康樂 謹具微誠
敢尊菲薄 伏願明神 特予陰德 永賜爾祉 報賽無斃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尚饗

下壇祝(場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場神之靈 伏以 群牧縱橫 馬超牛羊 已去甲辰
民得許耕 東作西成 酒積酒倉 螟蟻蠡蟹 克除田庄 蠡斯之羽 未得00 瘟
疫疾病 無人疆場 畜不呵噤 亦無落傷 家家康樂 戶戶太平 謹具菲薄 敢
尊微誠 實賴神力 報賽無窮 謹以清酌 庶羞祇薦右神 尚饗

51.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 큰제

維歲次 庚申 正月 己卯 朔 初九日 丁卯 初獻官 某 敢昭告于 尊靈之

前 伏以 於赫明神 照臨里域 保護民物 黎首愛育 賴安蒼生 其所懔懔 作
威作福 民賴寧謐 莫非爾極 古往今來 時起不靖 到處復作 此將何若 歲
新月正 梁供至誠 拱手伏祝 伏願明靈 感我微忱 危中得安 病中得列 東
西南北 都防諸厄 驅逐海外 物犯我域 俾我一同 永掃病跡 人人壽福 家
家太平 五穀豐登 六畜蕃盛 轉禍爲福 轉災致祥 終歲安樂 永垂太平 山
崩海湯 報賽不絕 是誰之功 都是神德 謹以醴劑 敢陳牲幣 庶品式陳 明
薦尙饗 ㄴ

(2) 별제

維歲次 丙寅 正月 甲申 朔 初四日 丁亥 初獻官 某 敢昭告于別行大神
前 伏以 管此一域 保佑民物 賴安蒼生 其所懔懔 作威作福 民賴寧謐 莫
非爾極 雨順風調 都由神主 海不揚波 都是神德 人神相依 何依何往 大
享畢後 因以伏祝 伏願明靈 感我一文 危中得安 病中得列 百事解冤 千
罪消滅 東西時起 南北瘟疫 驅逐海外 勿犯我域 俾我一同 永掃病跡 人
人壽福 家家太平 百穀無災 六畜有全 終歲安樂 永垂太平 伊誰之功 維
神之德 謹以醴劑 敢陳牲幣 庶品式陳 明薦尙饗

52.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上壇祝

醜神之靈 伏以 赫赫明新 降我一域 彌災致祥 莫非其極 茲值新正 齋明
盛服 吉日良辰 敢尊非薄 昭昭在上 洋洋歆格 神唯降鑑 特垂陰鷲 實賴
神休 凶反爲吉 煽動和氣 在日僑胞 體力康寧 營業如意 所願成就 屏彼
奸賊 掃除螟蠹 驅逐癘疫 滋滋百畜 穰穰百穀 俾我一域 永歲康樂 謹以

牲幣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 神其佑之 尙饗

下壇祝

① 諸首任神之位 當日特受 醮神主嚴命處分內 今因萬民止明祭 우마無
癖事 特受大赦 德如青天 恩如日月 奉祭之日本日故 諸首任諸位 掌率諸
色 必也來會 生主里事 死何閑焉 顧飲酒饌 一境之內 染疾客神 邪神 牛
馬癖鬼 眼同逐隨 千里放送之後 可使行祭 城邑一村 馬牛無癖 永世太平
謹告

② 染疾神之位 染疾致死神 飢死神 非命致死神 一境之內 若此之神 不
如其幾 孤魂無託 祭祀不及 陰魂未散 結以爲妖 於唯衆神 來享飲食 一
境之內 馬牛癖鬼 卽日迅掃 千里放送之後 使此城邑一域 永位太平事 謹
告

③ 牧童神之位 牧童死神 屠牛馬死神 爲賊死神 一境之內 若此之神 不
知其幾 孤魂無託 祭祀不及 陰魂未散 結以爲妖 生災彌災 是神所主 馬
牛癖斃 是神所主 城邑一村 農牛騎馬 畜屯之家 屯牛屯馬 永無蹇癖 晝
夜看牧 永使肥澤 逐首自產 歲加蕃殖 小無小損 永世太平事 謹告

53.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 1리

維歲次云云 敢昭告于 醮神之靈 赫赫明靈 鎮我一域 局茲歲首 敢乃祈
福 有事卽吉 有禱卽吉 民安物富 莫匪爾極 胡今聖代 間有怪氣 願多明
靈 眷顧里德 廓掃妖鬼 清此一落 農不違時 熟我百穀 家家太平 人人安

樂 轉災爲祥 保護民物 人享壽福 裕量蠶角 於萬斯年 寧忘厚德 茲擇吉
辰 齋休信宿 敢竭微誠 庸薦非薄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尙
饗

54. 남제주군 남원읍 하예 2리

維歲次 己巳 正月 丁亥 朔 拾壹日 初獻官 某某 敢昭告于 醮神之靈
伏以 赫赫明神 鎮我一域 弭災招祥 莫匪其極 有願感應 非今自昔 謹修
郊社 致祭明靈 扇播和氣 屏却災殃 司我壹洞 願蒙嘉祥 康濟此民 無作
神羞 俾我老少 永賜伸休 世當己巳 日值中丁 敢竭細誠 謹陳柴望 伏惟
明神 降之辟福 瑞感下氓 享應殷薦 春願齊明 昔疾今愈 無有遭罹 舊殃
新消 永終是圖 民之未生 天德何極 物之未盛 地之何博 蠢愚下氓 欽仰
信德 特垂蔭0 永賜天祿 耆耄康彊 童稚歡躍 五穀豐登 六畜蕃息 世惡百
鬼 乃驅乃逐 都濟蒼生 佑我愚蠢 躋彼壽域 永杜來殃 共受嘉澤 謹以弊
醴 齊粢米盛 庶品式陳 明薦尙饗



55.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里醮之神伏以洋洋左上 盛矣其德 在帝之左驅厲
之右 鎮茲疆場 司我禍福 迨令新正月寅日亥 敢竭微誠 恭疏獻尊 伏惟尊
神 遂旋化柄 順陰調陽 除災降祥 天無烈風 海不揚波 在於田野 稼穡豐
登 在於沿海 漁採充實 畜產繁興 雜虫驅除 病疾之崇 駕風鞭遙 禍亂之
憂 禍福無門 惟人召之 夭壽違世 由天佑之 進物之兆 原始及終 使我蒸
民 庶望太平 告之卽應 感而順通 茲尊非薄 式陳菹豆 謹以清酌脯醢祇薦

歲事尙饗

56.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厚德載物 一城之主 歲德方熙 無不周載 明明維神 照臨下土 司我生靈
莫匪爾極 卜擇吉辰 伏乞神明 敢竭微誠 特垂陰隲 遂被千怪 播厥百穀
掃災降祥 轉禍爲福 使我群黎 永歲安樂 謹以 禮齋粢 牲盛幣 祇薦于神
尙饗

於赫靈神 鎮茲疆土 於熙歲德 無不周載 明明維神 照臨下界 立我僉民
莫匪爾極 茲值良辰 謹具菲薄 盛矣乎德 特垂陰隲 調雨順風 無原無濕
豐滋百穀 漸蕃八畜 凡百邪崇 四外驅逐 掃災降祥 轉禍爲福 司我群黎
永歲安樂 謹以 禮齋粢牲盛幣 祇薦于神 尙饗



<abstract>

A Study of Village sacrifices in Chejudo

From ancient times village sacrifices have been performed in every village in Cheju-do. Village sacrifices are divided into two kinds; one of which is a service for a tutelary deity held by women and the other is a Confucian service held by men.

Village sacrifices not only show us the life of Chejuites which is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but they also suggest to us something to live for. In this study of village sacrifices in Cheju-do, I have researched the formation of village services, the relation between the services for a tutelary deity held by women and the Confucian services held by men, and the function of these services.

Services held by men; The basic form of services held by men is the sacrificial rite observed in memory of Confucius. And they include "Po-Je" offered to the village deity, "Byul-Je" offered to prevent a disease or a misfortune from prevailing in the village, "Hae-Sin-Je" offered to the god of the sea, "Je-Suk-Je" offered to the harvest god, "Ki-Woo-Je" offered during a long drought, and "San-Sin-Je" offered to the god of mountain.

The shamanistic service held by women is the sacrifice offered to "Bon-Hyang-Dang-Sin", the god who keeps the village safe and supervises all the village matters including birth, and death of the villagers. And the services include "Sin-Gwa-Se-Je" offered to thank god for the matters of the last year and to pray good fortune of a new year, "Young-Dung-Je" offered to the god who increases marine

products and guards fishery, "Ma-Bul-Lim-Je" offered to pray for the multiplication of cattle and horses, and to blow away the mold which covers the clothes offered to the tutelary deity, and "Si-Man-Kuk-Dae-Je", similar to the Thanksgiving.

The origin of village services was the shamanistic ceremony offered by men and women together from the first of January by lunar calendar to the fifteenth. During the "Gul-Gung-Pae" the group of merry-makers performed an exercism from door to door in the village, and every house gave them some grain and on the last day(15th) they offered the service for a tutelary deity. In 1392, Cheju local school annexed to the Confucian shrine was founded, and in 1416 Jong-Eui local school and Dae-jong local school were founded. And Confucianism was spread by the men educated at these schools, and the shamanistic ceremony was considered superstition. And then the ceremony was divided into two forms; a service for a tutelary deity held by women and a Confucian service held by men.

Village sacrifices are offered not only in cheju-do but they are offered all through the country, and we know that they have special functions which affect the local people; the "ritual function" and the "social function" The ritual function is the religous function which settles the various kinds of spiritual anxiety and gives hope and meaning of life. And the social function of village sacrifices are the succession of traditions, the spiritu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among the villagers,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and education of villagers.